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24 오공이냐!? 기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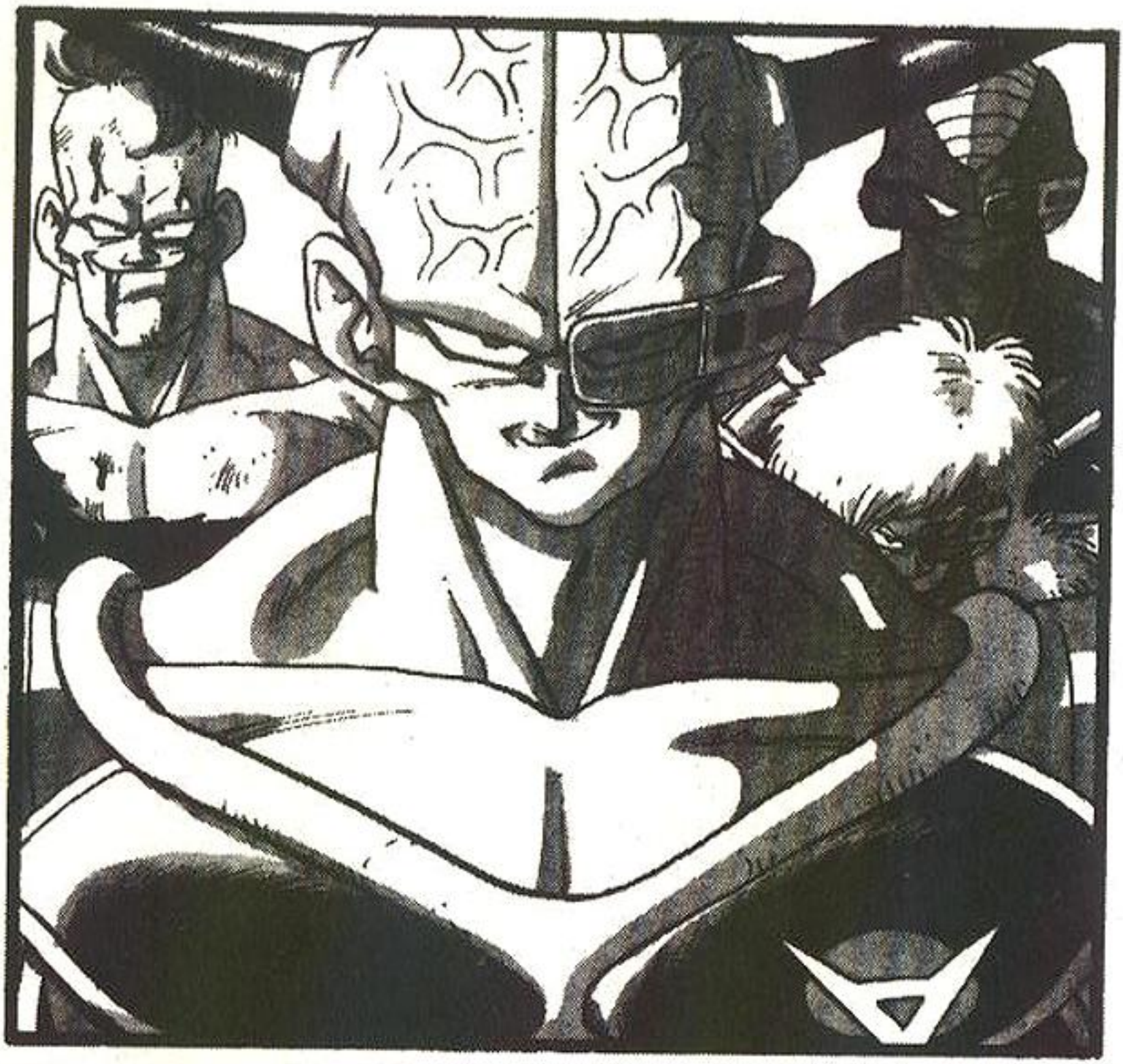
canned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10개월만에 저는 둘째 아이의 아빠가 돼버렸습니다. 이번엔 여자아이입니다. 모녀가 둘다 건강하여 너무나 기쁩니다. 위쪽의 개구쟁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엄한 아버지가 되자고 굳게 맹세하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물러터진 아빠로 보며, 신용을 잃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엄하게 대하자고 생각했지만, 여자아이라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물러터진 게 왜 나빠!!"라며 스스로 정색을 할 정도입니다.

canned by raprn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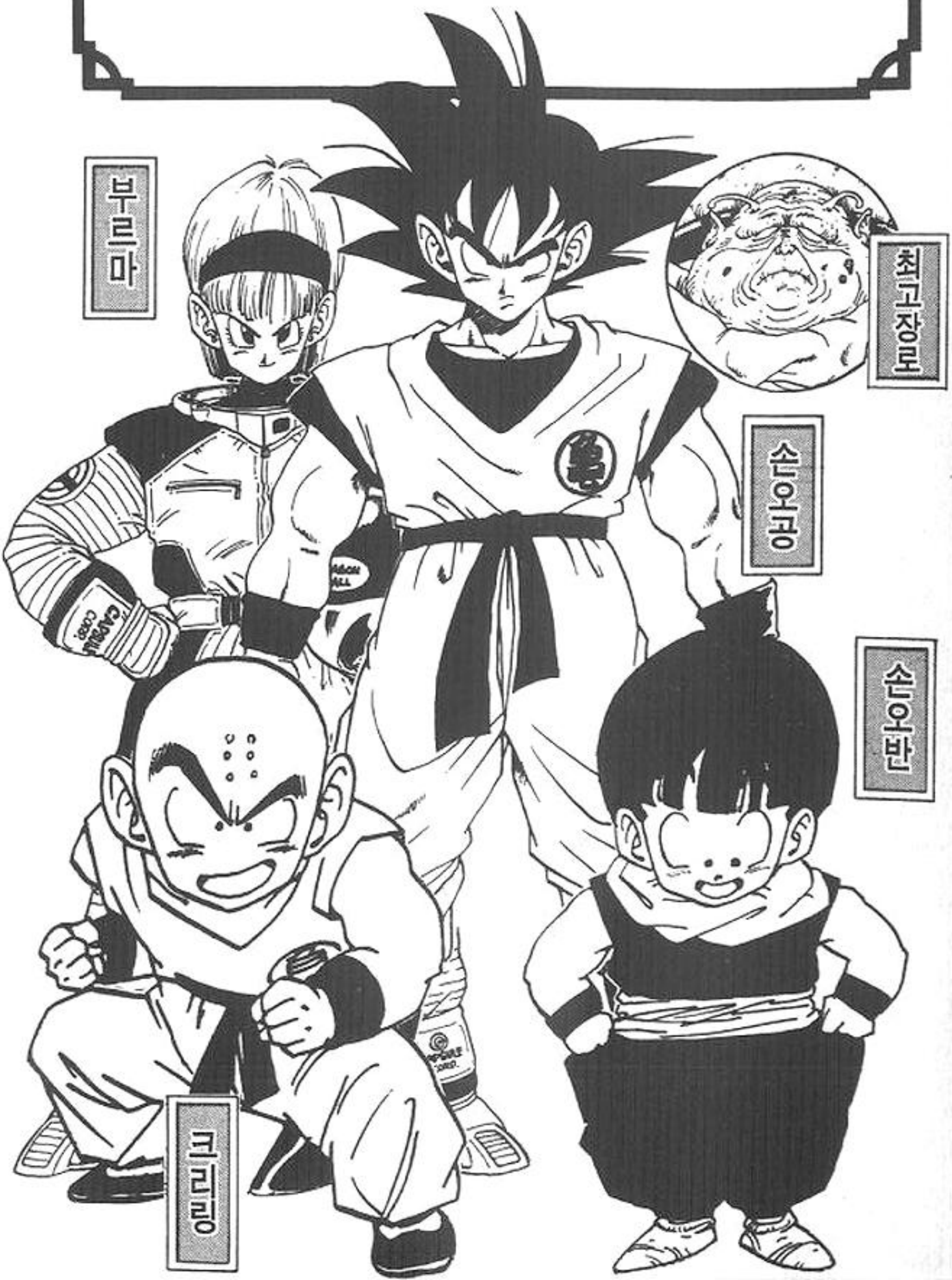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24편 오공이냐!? 기뉴냐!?

AKIRA TORIYAMA

등장인물소개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더욱 수련을 쌓은 오공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우승을 이룬다. 그후 지구를 습격한 베지터와, 크리링 · 오공과 친구들은 잃어버린 드래곤 볼을 찾아 나메크성에서 쟁탈전을 벌인다. 그리고 모든 구슬이 모인 곳으로 강적 기뉴 특전대가 등장!! 크리링과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베지터와 손을 잡고 프리더 일당과 맞서는데… !?

DRAGON BALL 24

오공이냐!? 기뉴냐!?



제277화 프리더의 웃음 …… 7
제278화 손오반의 죽음!? …… 22
제279화 불가사의한 손오공 …… 36
제280화 초사이어인!? …… 50
제281화 대결!! 지스와 바터 …… 64
제282화 베지터의 복잡한 심정 …… 79
제283화 기뉴 대장 등장!! …… 94
제284화 기뉴 대장의 자존심 …… 108
제285화 위기의 최고장로 …… 122
제286화 나메크성의 전사 네일 …… 136
제287화 보디 체인지 …… 150
제288화 오공이냐!? 기뉴냐!? …… 165
표지 페이지 대특집 XXIII ……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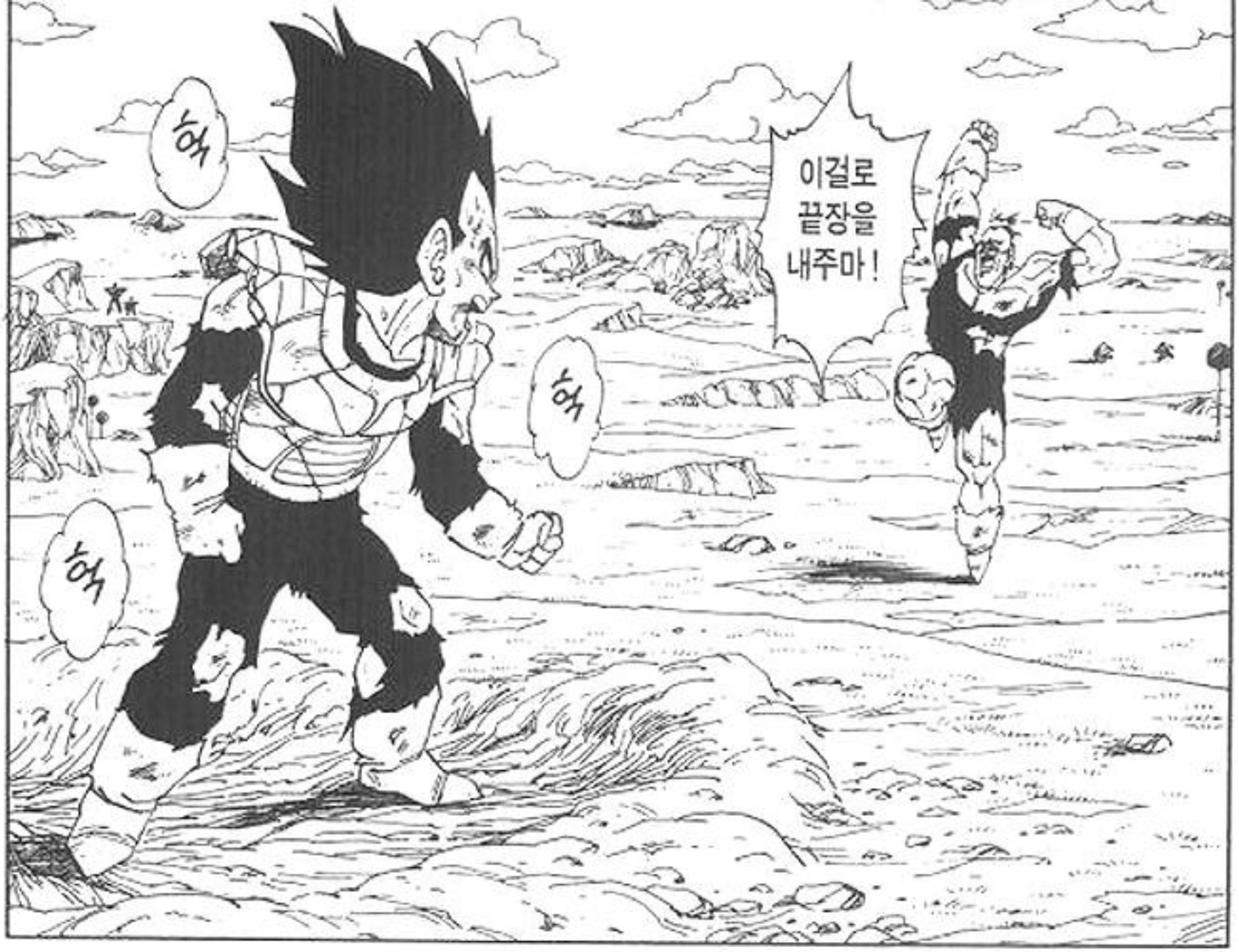
DRAGON BALL

제277화

프리더의 웃음

드래곤 볼




이걸로
끝장을
내주마!
놔
놔
놔


일레이저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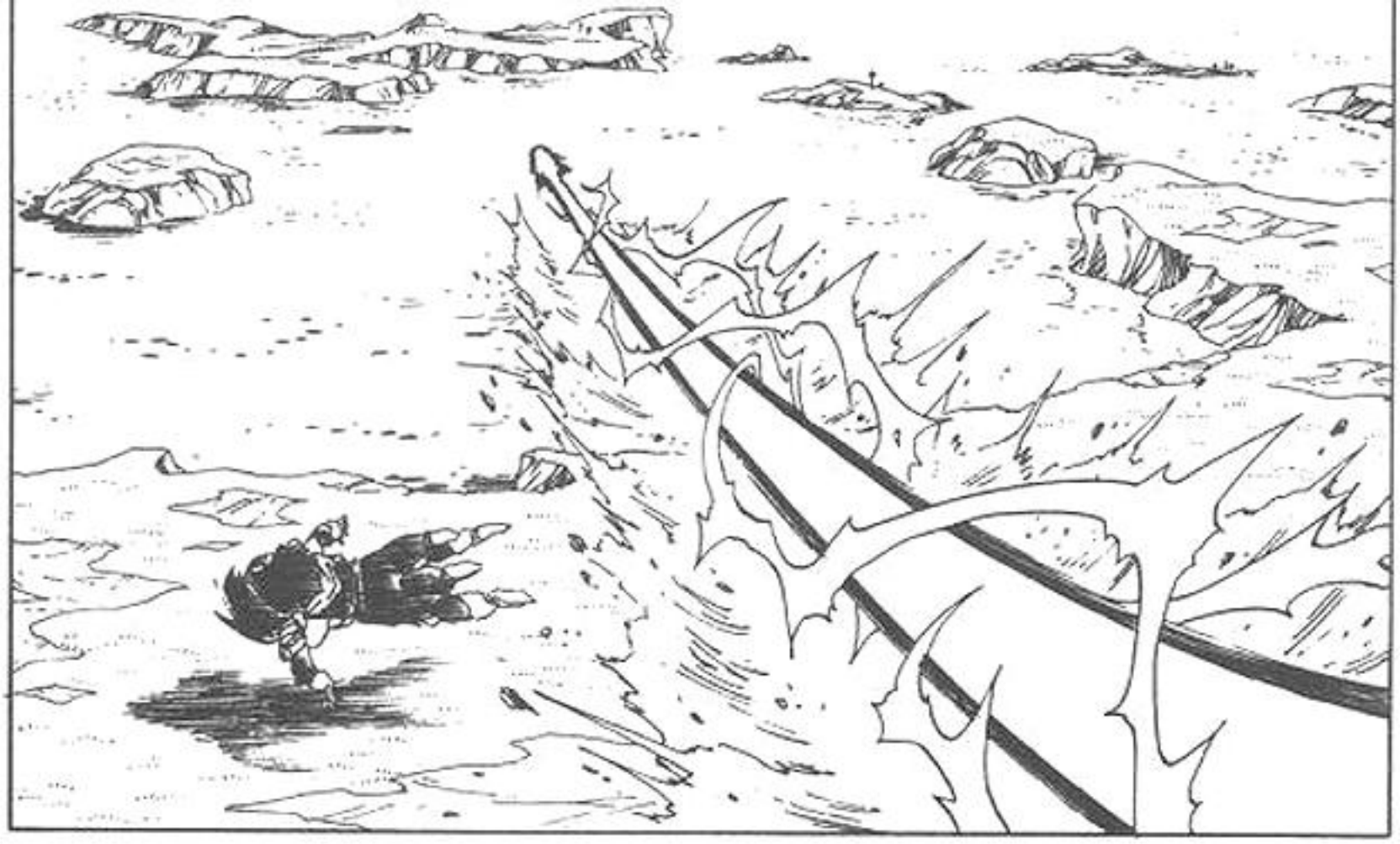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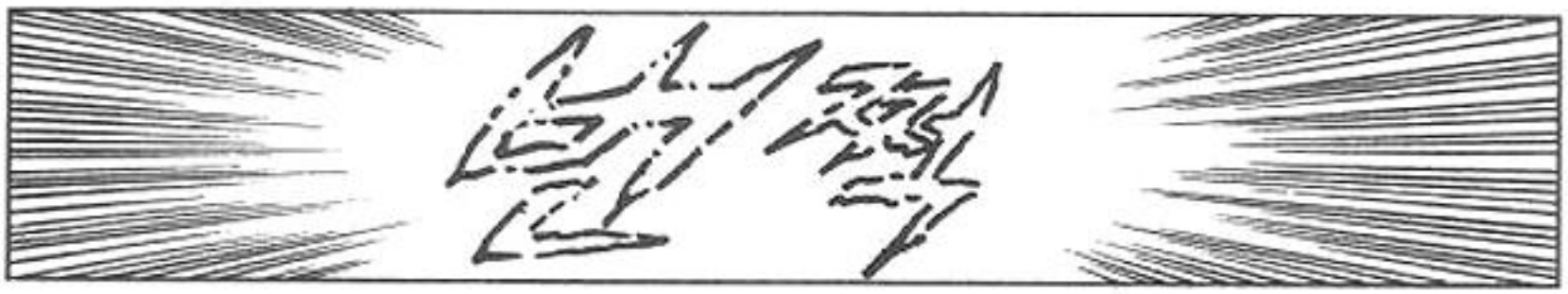

조,
좋아~!
공격이다,
오반…!
베지터에겐 빠른
공격을
피할 만한
체력이 남아있질
않아…!


리쿰…




우욱…!






Hoffoof



쓰…, 쓸데없는 짓을 왜 해….
비… 비켜…. 방해 말라구….
뭐…!? 아….
아이고….
으….
너… 너희들 진짜 바보 아냐…?
띠…, 띨띨한 놈…. 나…, 날 구할 틈이 있었다면 왜 너도 저놈을 공격하지 않았냐…!

지…, 진짜 무식한 기술이다….

따…, 땅이 패여서 별의 모양이 바뀌었네….

콰과과광---

조…, 조금 열이 받는걸….

덕분에 이빨이….

지금의 기습 공격도 제법 위력이 있네!

벌떡

위에서 정통으로 먹어서 입을 찧어 버렸잖아….

……!

이 두 꼬마놈도 내가 처치하게 해줘-! 괜찮지? 엉!! 엉!?

어이-! 바터?! 지스-!

으헤헤…. 이제 각오해라, 벌레들아….

으….

뭐, 좋아! 네 멋대로 하셔-!

그 대신 나중에 우리에게 초콜릿 파르페 한번 쏘는 거야-!

쳇…, 할 수 없네….




크리링
아저씨－!
파앗


!!


쿠욱!
큭…!


저… 저놈은 너무
무식하게 강해….
최고장로가 애써서
내 파워를 올려
주었는데도 아무
도움이 안 되다니….
이… 이럴 수가….
뼈… 뼈가….
이… 이럴 수가….
단 한방에
이 지경까지….


크,
크리링
아저씨!
탁

그만 힘이 너무 들어갔네…! 좀 더 데리고 놀 생각이었는데….

아까비~.

전혀 방법이 없네…. 도망쳐도 잡힐 테고…. 드래곤 볼도 빼앗겨 버렸어….

소…, 솔직히 이제 우린 끝장이야….

와…, 완전히 절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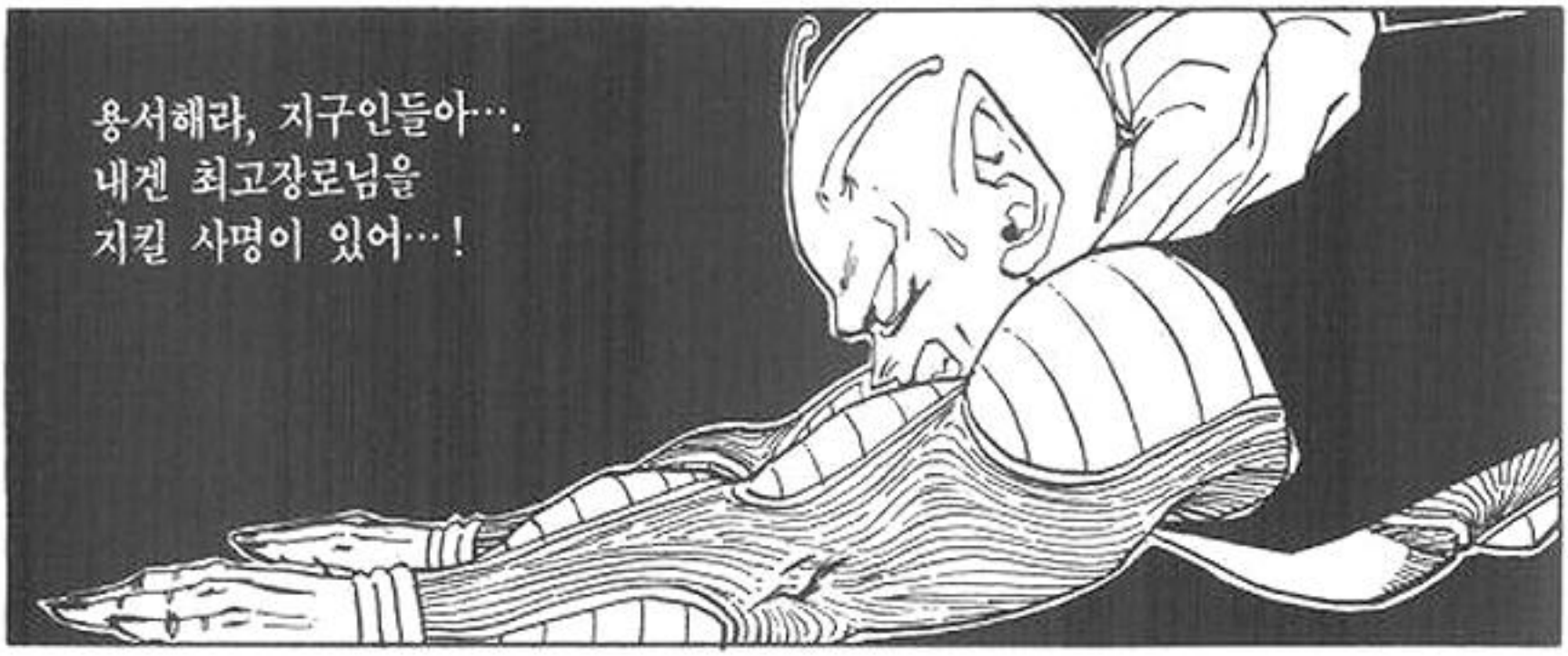
그 무렵, 최고장로의 명령으로 크리링 일행들을 도우러 나서야 했던 네일은….

끝까지 해볼 거야….

나…,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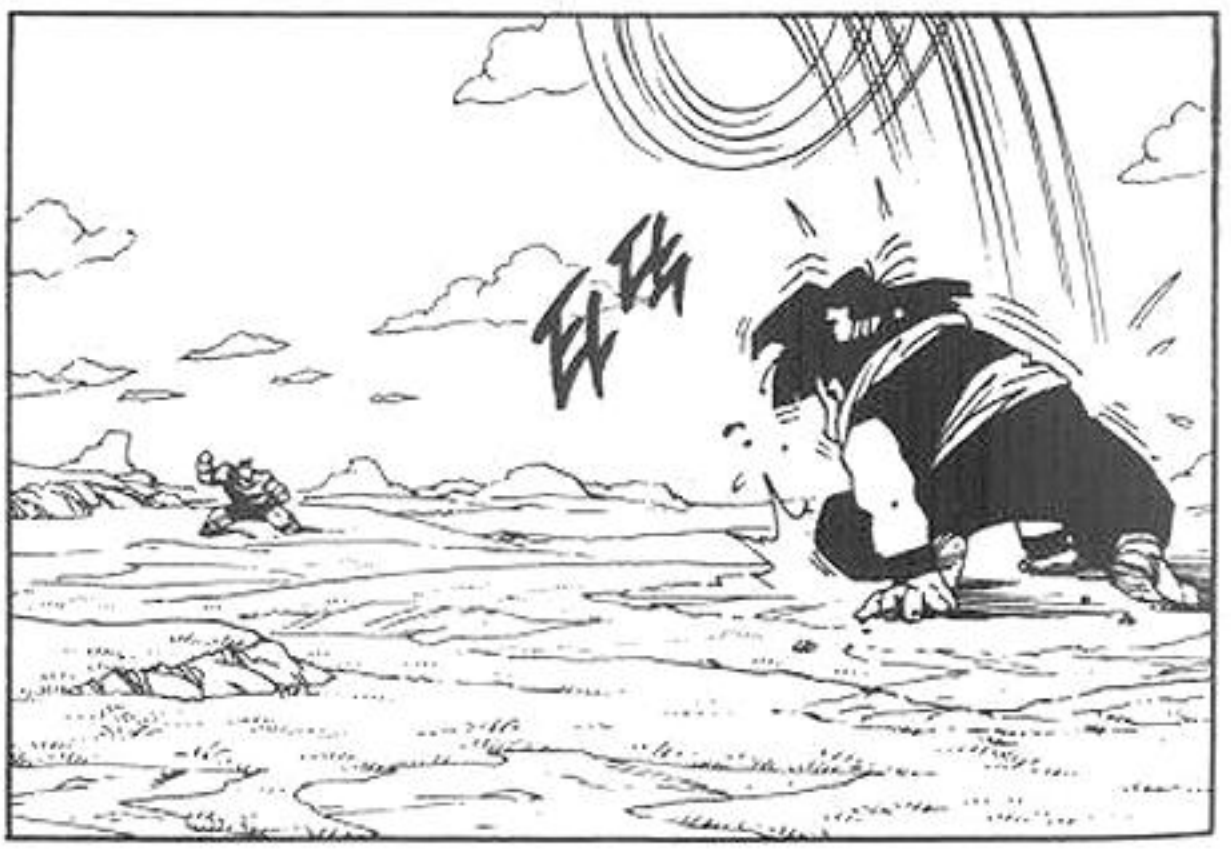
묘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최고장로의 신변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네일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웬일인지 도중에 최고장로한테 돌아가고 있었다….


용서해라, 지구인들아…,
내겐 최고장로님을
지킬 사명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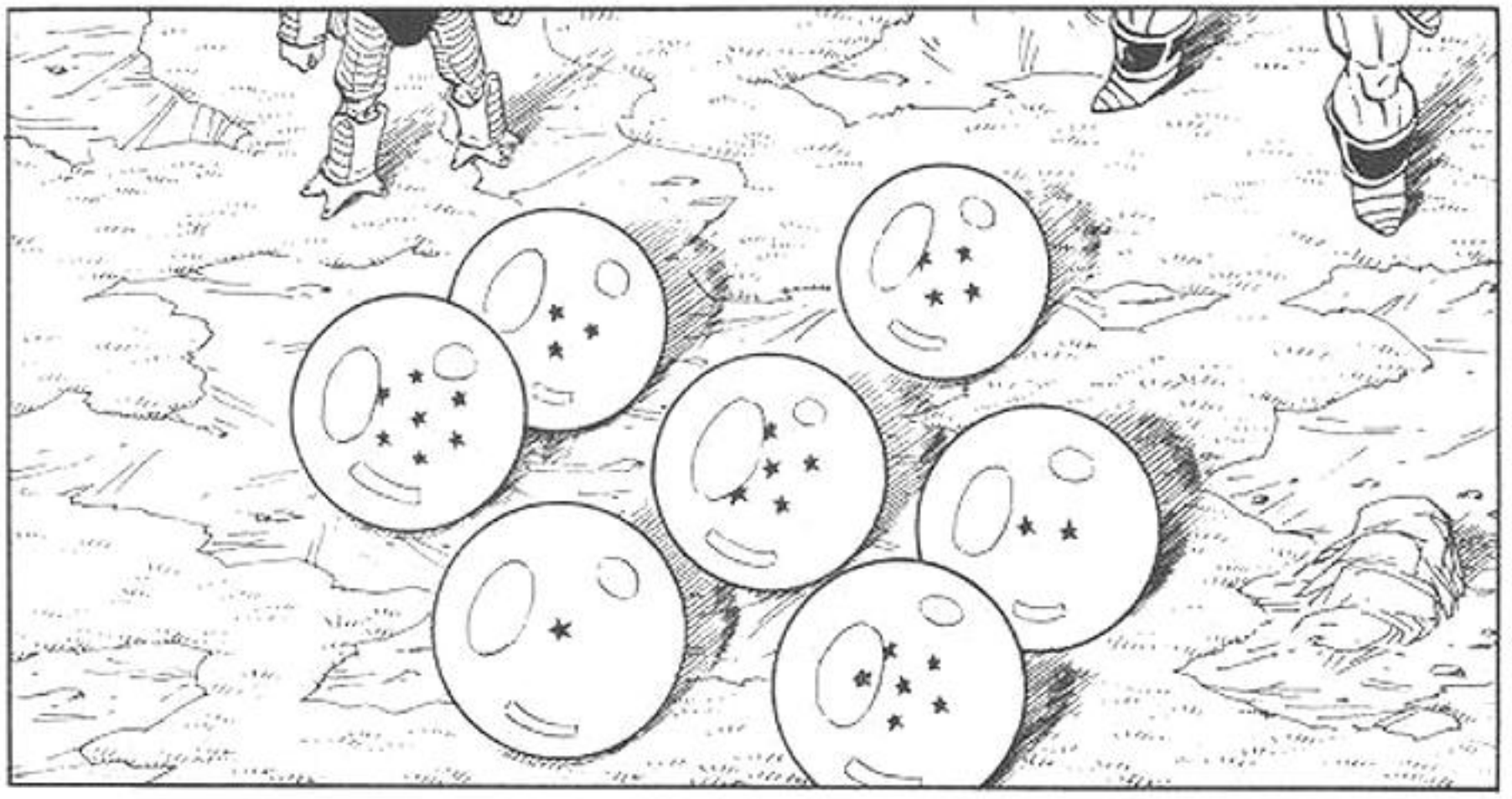



으…
으으…!




하아아앗—!
호이!
훅


큭-!!
앗!?
켁!!




역시
당신들 기뉴
특전대를
부른 보람이
있었네요.
프리더 님에게
이런 칭찬을
듣다니,
영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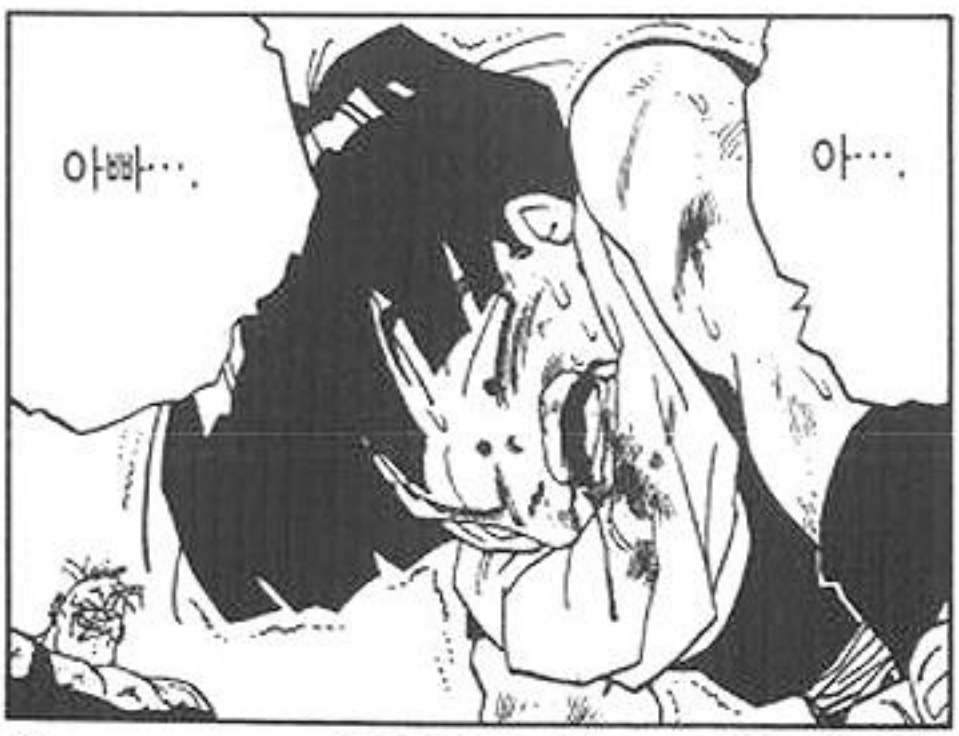

정말
대단한데요,
기뉴 씨….
이렇게 빨리
드래곤 볼
일곱 개를 모두
찾아내실 줄이야.


정말
너무나도
기쁘군요.
이제 드디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다음은, 제278화 손오반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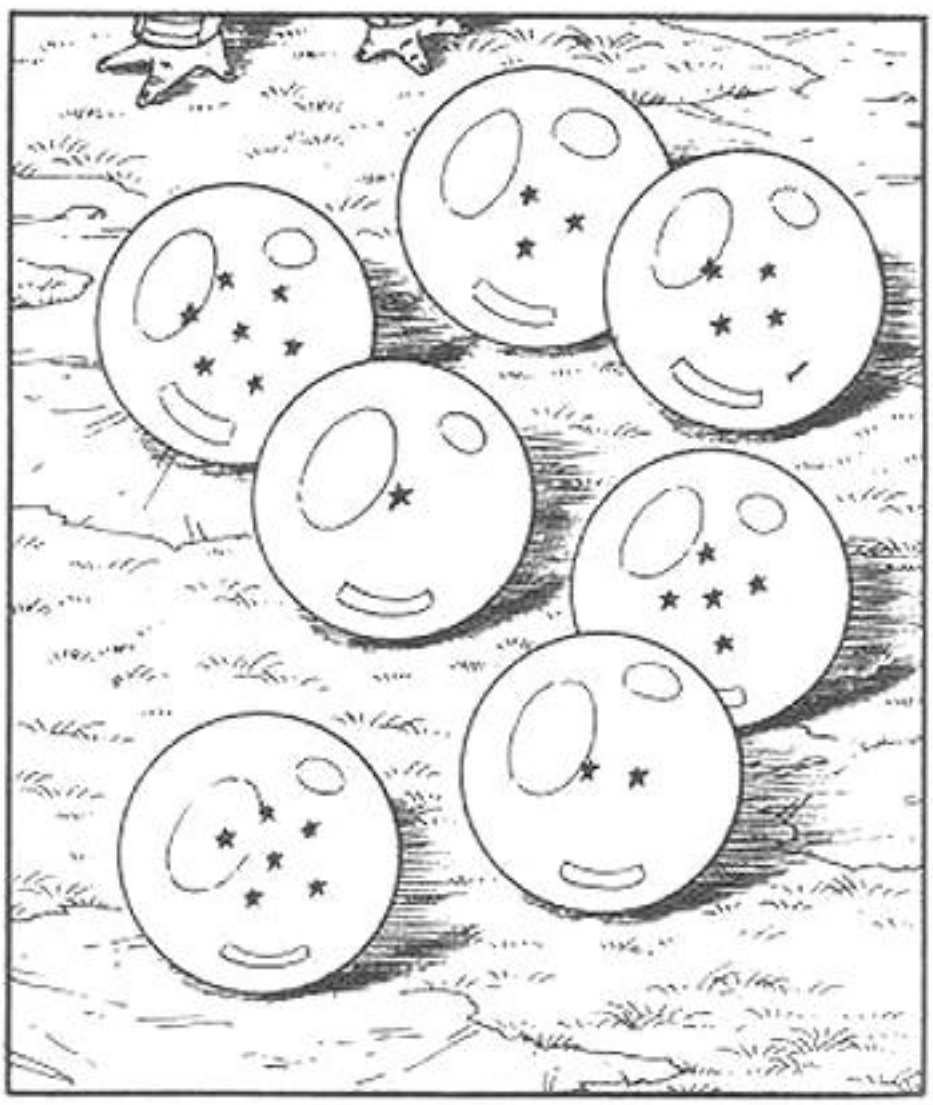

호호호…. 내가 이렇게 흥분할 줄이야.


자! 드래곤 볼이여!!




이야압!






.....

아…
아무 변화도
없네요….

……?

……

왜…,
어째서….

버, 벌써
불노불사의
몸이 되신 거
아닌가요?

앗!!

드래곤 볼을
모아봤자 네놈들은
어차피 소원을
이루지 못할 테니까….

자…,
가져가라….

아…
아뇨….
그, 그럴리가
없습니다….


나메크 성인밖에 모르는, 소원을 들어주는 비밀의 암호가…!?
무슨 암호가 있는 겁니다!


네놈들은 어차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네놈들은 어차피….
부, 분명 두개
드래곤
빼앗았을
나메크성
그런 말을 했는데
난 그냥 억울
하는 헛소리인
알았는걸


나메크 성인한테 그걸 알아내야 해…!
주문!? 장소!
아니면 볼
놓는 방법…!


어, 어쩌면 베지터 애들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이, 이 반응은 베지터 일행….


나메크성인은 대부분 죽여버렸으니…. 한놈만이라도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빡


앗!?
삐삣!
엑…
그, 그러
부하들에
죽이지 말라
해야겠네요

이런 장소는 공격한 적이 없으니까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포인트 8829401을 보세요…! 분명 나메크성인의 것으로 보이는 반응이 두 개…. 그리고 그 포인트로 접근해가고 있는 반응이 또 하나….

기뉴 씨는 여기서 드래곤 볼을 지키고 있도록 하세요.

내가 이곳 놈들을 다루는데는 익숙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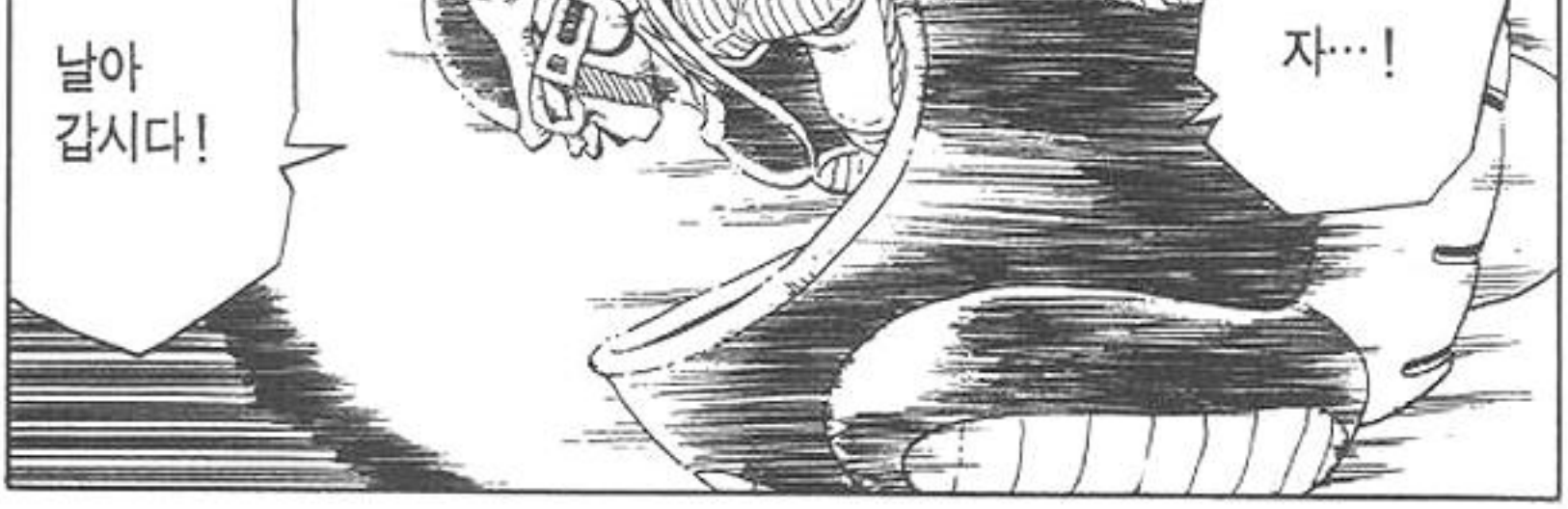
그럼 제가 가서 소원을 들어주는 방법을 알아내 오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물어봅시다!

맡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날아
갑시다!
자…!


프리더가 탄 머신의
스피드는 강렬하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목적지인
최고장로를 향해
계속 날아갔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마침내 최고장로의
존재를 프리더가
눈치채버린
것이다…!


먹어라,
먹어!!
우하하하
하하하!


큭!
요놈! 여기다 ー!
크악!


아…
아…
으으…
빌틀
빌틀…
아으윽…
아…
털썩…
크헉!
허억…
으…
으윽…
허…
허헉.
허헉…
탁
이…
이제
됐어…
더…
더이상
일어서지
마…,
오반…
흑…
훌쩍.

어느 별
꼬만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놀랄 노자다….

호오~.
아직도 뜻모를
헛소리나
지껄일 기운이
있나보네?

너…
너 같은
놈에게….

나… 난…
아빠의….
손오공의
아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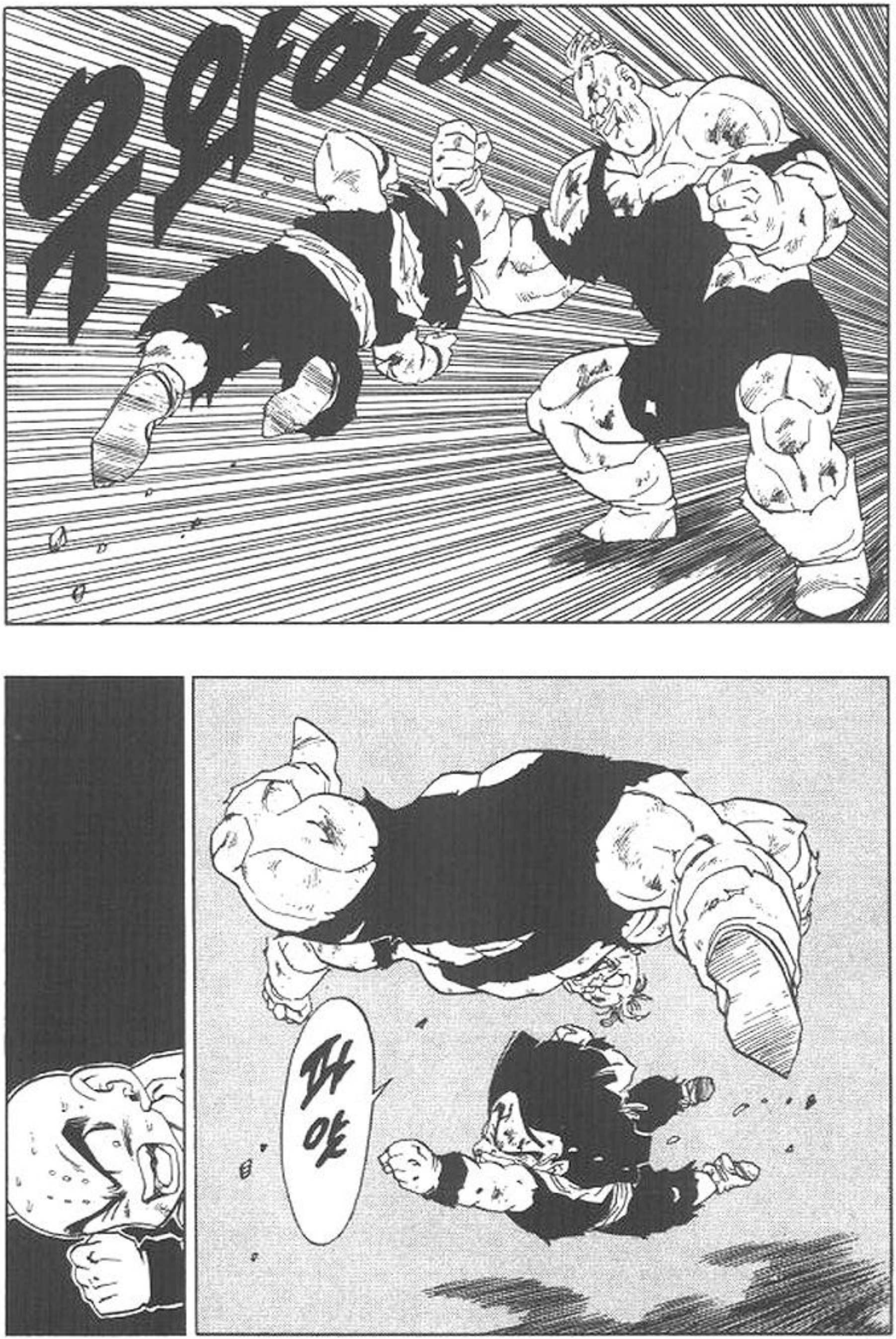
너 따위
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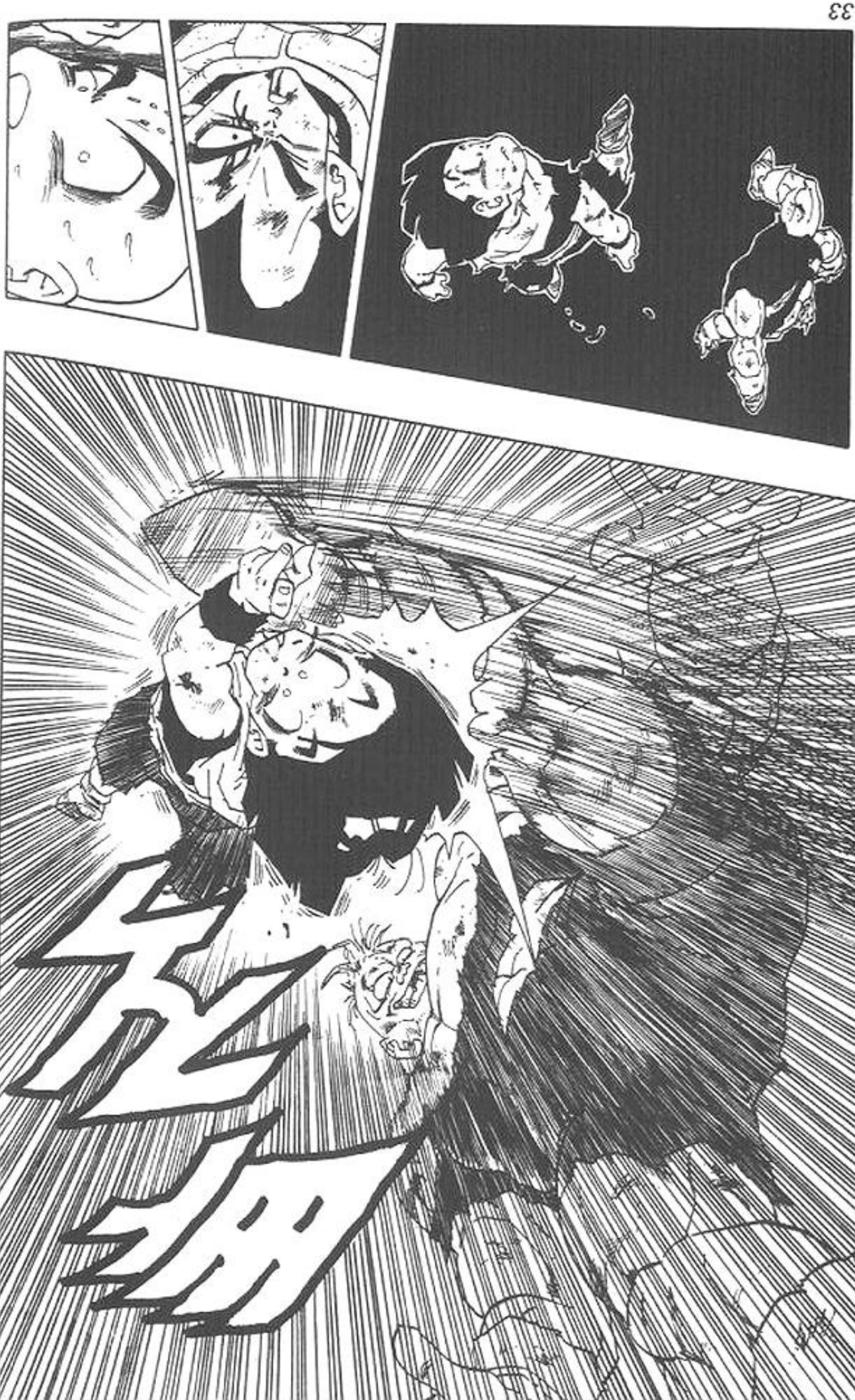
안 져- !!

저,
절대!

정말 겁이
없구나!
상대를
너무 잘못
골랐어!!

으하하
하하- !!


아아아아
파앗




콰당…
……!
쩝쩝
쩝쩝
삐삐!!
조… 조금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줄 알았더니….
쳇…. 부… 불쌍한 바보자식….
오반…!
크으… 크흑…!
저승 가기 직전이군. 이미 전투력이 남아있지 않아.
당근이지. 목뼈가 작살 났는걸.

엉?

프리더 님이 왜 일부러 우리 기뉴 특전대까지 부르신 건지 이해가 안 되네….

훙…! 모두다 형편없는 피라미들이로군….

워지?

뭐, 아무튼 이제 세 놈 다 끝장내 버릴까나….

슈우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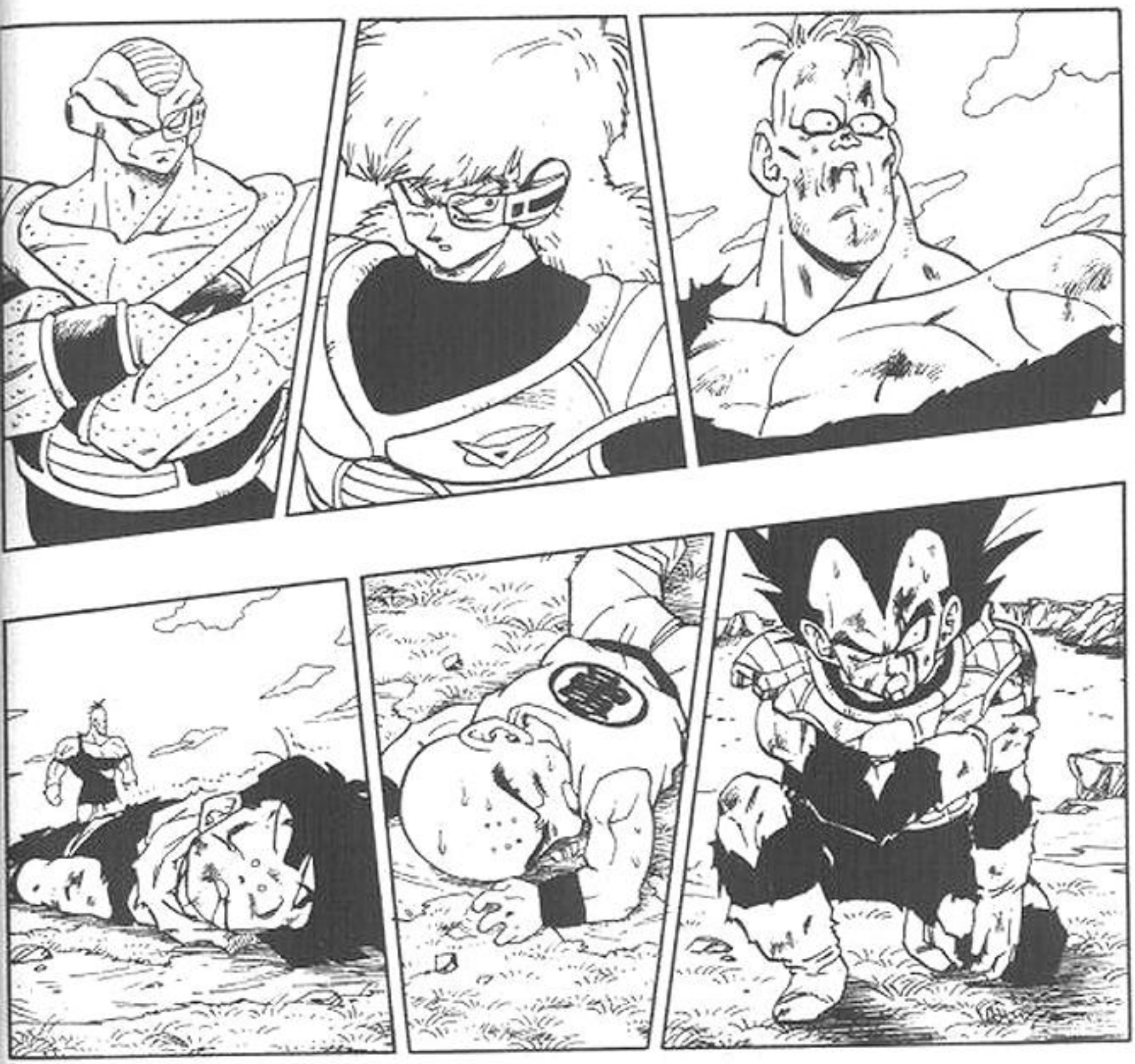
CAPSULE
CORP.

쿠쿠쿵….

우주선이다!

내려왔네.

다음은, 제279화 불가사의한 손오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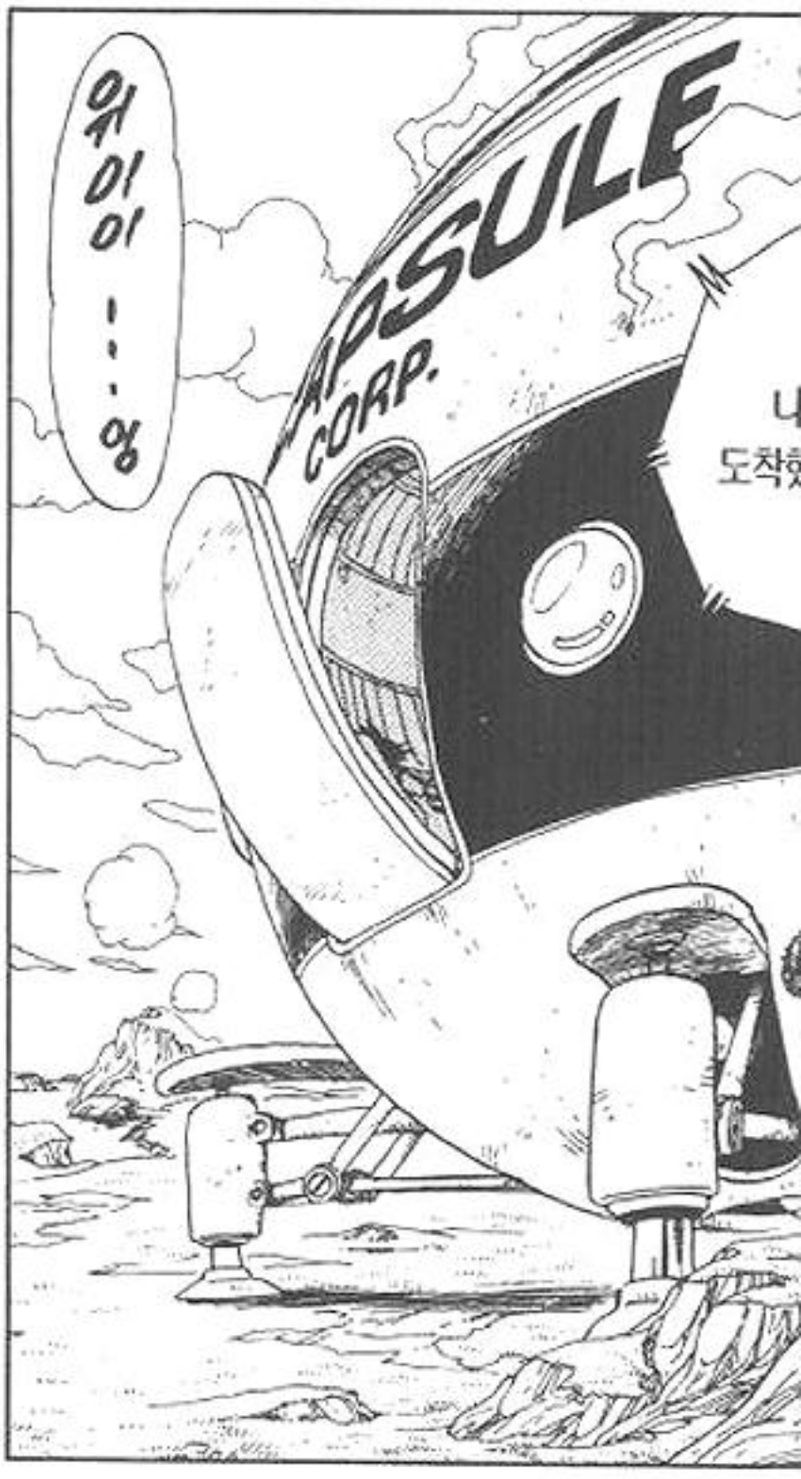

어디서 온
우주선이지 ?
저건
뭐야 ?


오공이
왔다구…!
드…
드디어….


오공
이다….


워이이이이!!앙


끄응—!!


워이이!!앙
APSULE
CORP.




제발 무사해다오. 크리링, 오반, 부르마….
빨리 세 사람을 찾아야 돼….


바로 근처의 거대한 기가 세 개 모인 곳이다…!
오반…!? 크리링도…. 큰일났다! 죽어가고 있어…!


이럴 수가…. 엄청 무식한 기를 가진 놈이 길거리 돌맹이처럼 우글거리는걸….


금방 간다, 기다려라!


이제 100배의
중력에도
견뎌낸 수련의
위력을
보여주마!


CELLE
WHOOSH


GO


OX
OX

카…
카카로트…
결국 왔구나…

곧 너한테
선두를
줄게.

크리링!

후…
후하하하…
오공…!

파팟

앗!?

자, 이걸
먹어야지.

넌
뭐야?

야,
임마!

너도
그놈과
한패냐?

안 되겠나…?
목뼈가 부러져
거의 파리
목숨이군….

오반!
선두
먹어라.

걱정 마라,
아빠가
먹여줄
테니까!


번쩍!!!


안녕!
아, 아빠!
번쩍


농담도 심하셔. 게다가 전투력은 먼지 같이 거의 없어.
헹!
뭐 하는 놈이지…. 상당한 스피드인걸…. 저놈…, 너보다 훨 빠른 것 같은데….


저, 저봐! 아, 아까 다 죽어가던 꼬마가…!
어, 어떻게 된 거지…!?


지독하게 당했구나, 오반….
……
으…, 응….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


아, 아빠! 조심해. 저, 저놈들…
잠깐만, 오반. 크리링에게도 선두를 먹여야 해.

왜 베지터도 심한 부상을 당한 거지…?

저… 저놈들한테 터졌어. 아, 아무튼 너무도 강해.

크리링, 오래 기다렸지. 선두다.

이… 이거 반가워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슬퍼 한다고…?

아무튼…

억울하지만…. 선두로 기운을 차려봤자 또 당할 뿐이야….

오공…, 저… 저놈들 파워를 너도 알겠지…?

아… 아무리 해봐야 도저히 이길 수는….

또, 또 부활했네…!


얘기 안 해도 돼.
워…, 원래는 한패였던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볼게….
?


그건 그렇고, 왜 베지터가 저놈들에게….
베… 베지터도 저 모양, 저 꼴인걸….
한패 아냐?


뺏긴 드래곤 볼…. 그리고 프리더란 놈과 그 일당에 대해서…, 베지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를 알았다. 너희 둘이 엄청 파워가 많이 올라간 이유나…, 부르마도 무사한 것….


뭐, 뭐 하는 거니?
어…?
나, 난 열은 없는데….


너, 너! 어느 틈에 그런 능력을…!?
남은 선두는 하나뿐이네….


베지터는 여전히 지독한 놈 같지만….
사정이 어떻든 이 싸움에서 너희들 목숨을 구해준 것 같군….
!!


헉, 뻥 아냐!?
어, 어떻게 그걸 알지!?
글쎄…. 왠지 이렇게 하면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걸랑.


베지터!
파
쳐억
?
그걸 먹어봐!
야, 얌마! 마지막 남은 한 알이잖아!? 왜, 왜…!
……
우물 우물…
움찔…
……
모…, 몸이….

나…
나중에
결판을
…!?

뭐…!?

그런 거 아냐….
저 녀석과는 나중에
지구에서 결판을
내고 싶고….

이, 이 멍청아!
저놈도 치료해서
넷이서 같이
싸우겠단 속셈일
테지만, 어차피
그래 봤자….

호,
혼자서
처리한다고
~!?

아,
아빠…!

나 혼자
처리할게.

이놈
들은….

첫…, 묘한 놈이네….

우릴 혼자서 처리하겠다고라!?

척…

어이-! 이 쓰레기의 전투력은 얼마나 되지!?

악간은 재밌게 좀 해다오….

헤헤 헤헤….

쟤… 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맛이 좀 간 거 아닌가…?

아… 아빠가 어떻게 된 거지…!?

그냥 뻥쟁이었단 말야-?

이런…. 진짜 실망이군….

진짜 쓰레기나 똑같아! 전투력은 겨우 5000 정도야-.









다음은, 제280화 초사이어인!?

이 녀석,
역시 좀 돌았나봐.
이제부터 죽어갈 놈이
헤죽거리다니.

어허!?

뭐!?

넌 날
이길 수
없어.

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구.

진짜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푸하하하-!
뭔 헛소리를
지껄이나
했더니만!

.....

서…, 설마…!
아… 아냐…. 그럴 리 없어….

저… 저런 놈이…, 하급 전사 카카로트가….

저… 저런 허풍을 떠는 애가 아니었는데….

저… 저 녀석, 역시 이상해….

아… 아빠가 혹시 상대의 파워를 모르는 거 아닐까…?

저…, 전설의 초사이어인이 될 리가 없어…!

한방에 아주 영원히 얌전한 몸으로 만들어 주마!

더이상 정신병자의 농담이나 듣고 있을 수 없다.


초… 초사이어인은
1천년에 한 명 나타난다….
어떤 천재전사도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버리는 사이어인….
그… 그 이야기는 단순히
꾸며낸 전설일 텐데….


자!
각오
됐지!?


마…, 만약
전설이 사실이었다 해도
초사이어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뿐이야.


기뉴
특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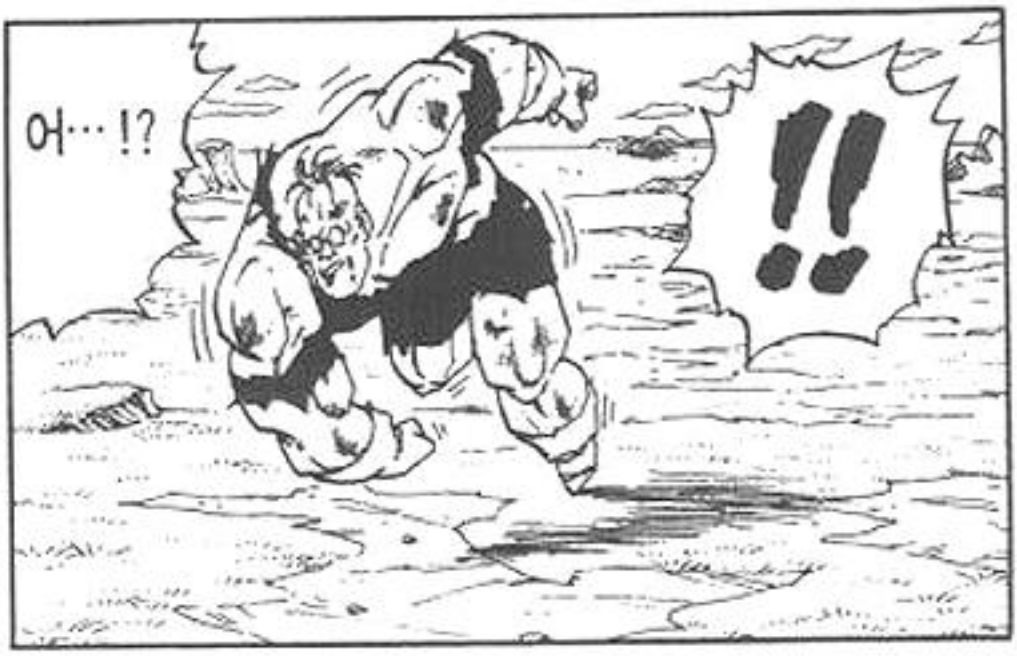



파파팟
리쿰…


마하…
어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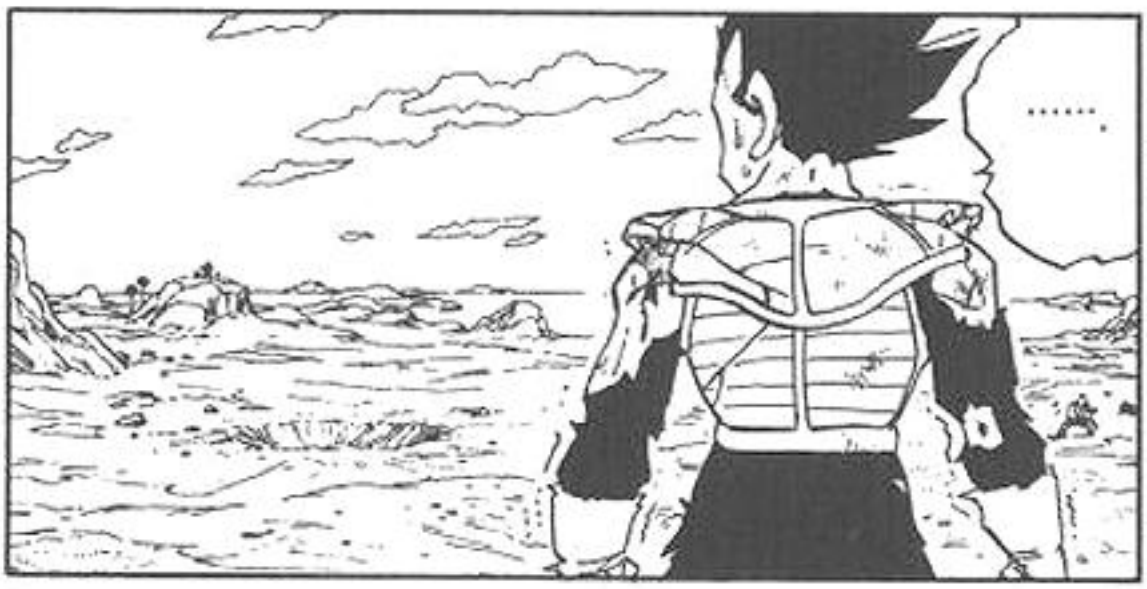



옴마!?
아니!?


어…!?
!!


할 끔


어…
어디
갔지…!
이…
이런….
사, 사라
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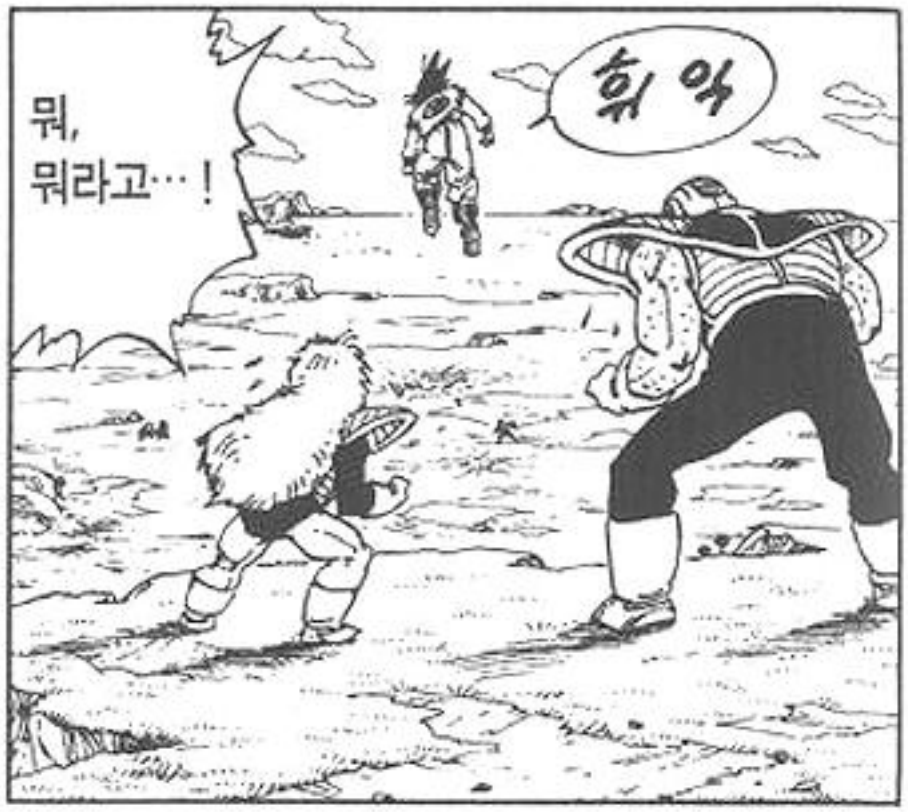

아
니
!?


삐
삐
삐!


……?
이, 이런.
어떻게
된 거야…?


뭐,
뭐야…!
이놈이
…!!
어…
어느
틈에…!
어떻게
저쪽에…!?
!?
지금은
너그럽게
봐줄 테니
꺼지는 게
좋을 거야.
……
너희들도
프리더란
악당과
한패구나.


탁


휘 익
뭐,
뭐라고… !


이…
이 자식…
스피드 하난
자신이 있는 것
같네….
헤헤….
그렇지만
도망만 다녀서야
언제 날 이길 수
있겠냐… !


DRUN
DRUN…


베… 베지터만은
오공이 있는 위치를
파악했던 것
같아….
지… 지금
그 움직임이
보였나… !?





이… 이번에는 카카로트의 진가를 알 수 있다….



네마리 몽땅 세트로 저승으로 보내주마!



리쿰….



쪼~아!! 이렇게 된 이상, 내 특기를 구경시켜 주마….

경고하겠는데, 아무리 빨리 토껴도 소용 없을 거다!

어쨌든 나 리쿰 님 주변은 상당히 넓게 날려버릴 테니까….


!!
크…,
큰일났다…!


울트라…


파이팅….
OH

빈틈
투성이라서
그만 나도
모르게….

미안!

우…
우쿠국….

이…
이놈이….

이…
이….

!!

아…
아니…!!

털----썩

마…,
말도
안 돼…!?

서…,
설마….

아빠가
쓰러뜨린
거야…?

어…?

꿈틀

꿈틀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리… 리쿰이….

벼…, 벌거
아닌 공격이었을
텐데….

베… 베지터나
우리가 아무리
공격해도 눈 하나
깜박 않던 놈을
단 원빵에….

아…
아무리
기습이었다고
해도….

제…
제길…!!

으….

덜덜
덜…

사…
사이어인의
전투 레벨을 확실히
초월했다….

저 녀석…,
대체 무슨
훈련을
한 거지…!?

지…
지구에서
싸운 그 녀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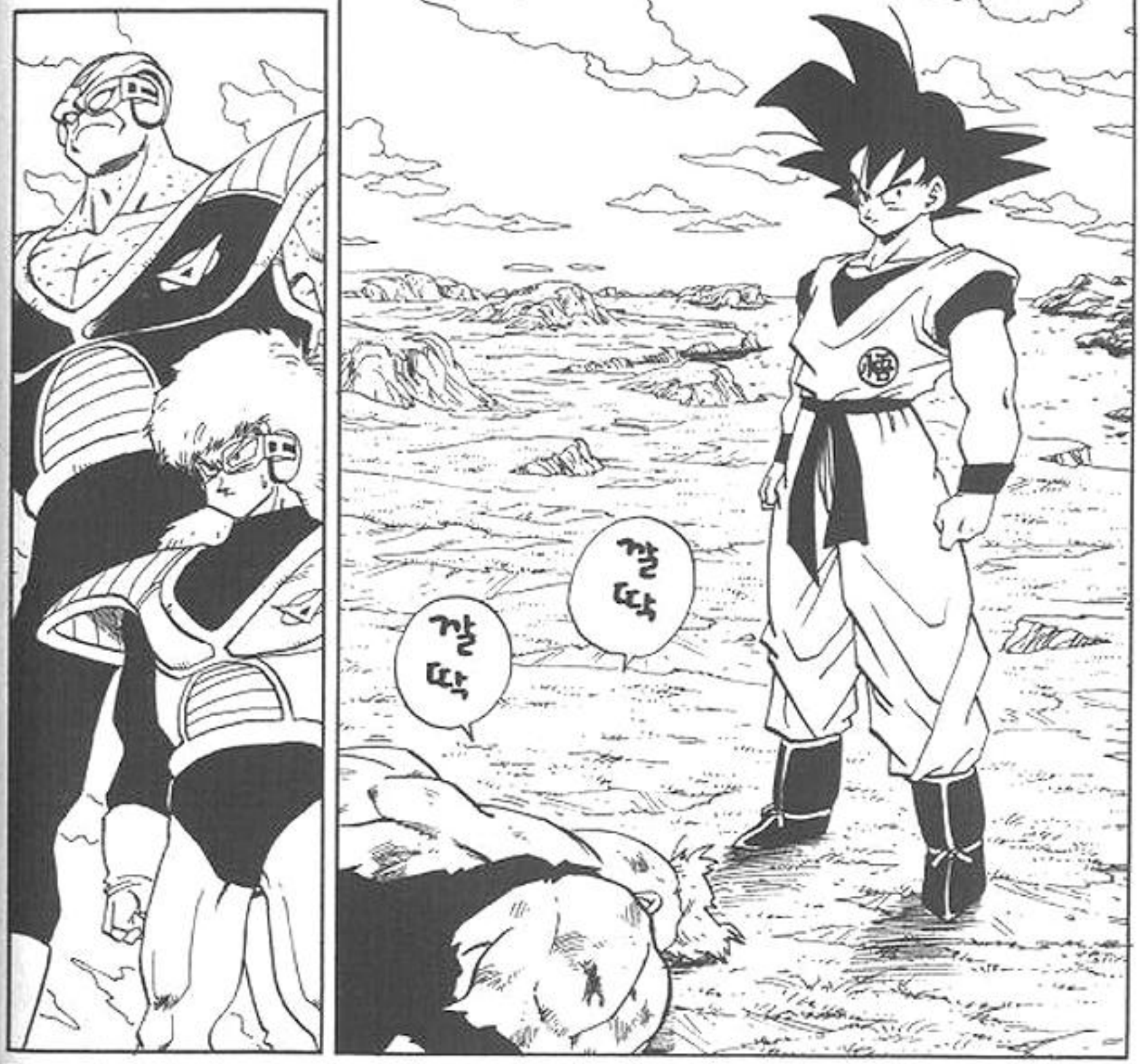
저…,
전설은
사실이었나…!?

이… 이번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야….
내… 눈은
속이지 못해….

정말
초사이어인이란
말인가…!?

어…,
엄청나게
무거운
한 방이었어….

다음은, 제281화 대결!! 지스와 바터


깔딱
깔딱


히죽….
안 그러면 이놈 꼴이 되고 싶냐!?
늬들은 어쩔래? 빨리 너희들 별로 돌아 가시지!

그래…. 아무래도 자기가 실력으로 리쿰을 쓰러뜨렸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걸.

들었냐? 바터, 저 건방진 놈이 또 저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지껄이네.

방심한 리쿰과 묘한 우연이 그냥 겹쳐진 것 뿐인데….

……

뭐… 뭐야…. 저… 저 오공의 자신감은….

우린 천하의
기뉴 특전대잖아….
그걸 가르쳐주자….

맞다. 분명히
우연이야….
놈의 전투 수치는
거의 변함이
없었어….

야압!

가자!

카카
로트의
승리다
…!

역시
안 돌아가시
겠다…?


타앗!
타앗!




기뉴 특전대를 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마….
이… 이놈이…!!
어차피 상관없지만, 너희들 너무 방심한 것 아니야?
앗!
우… 우어억…!

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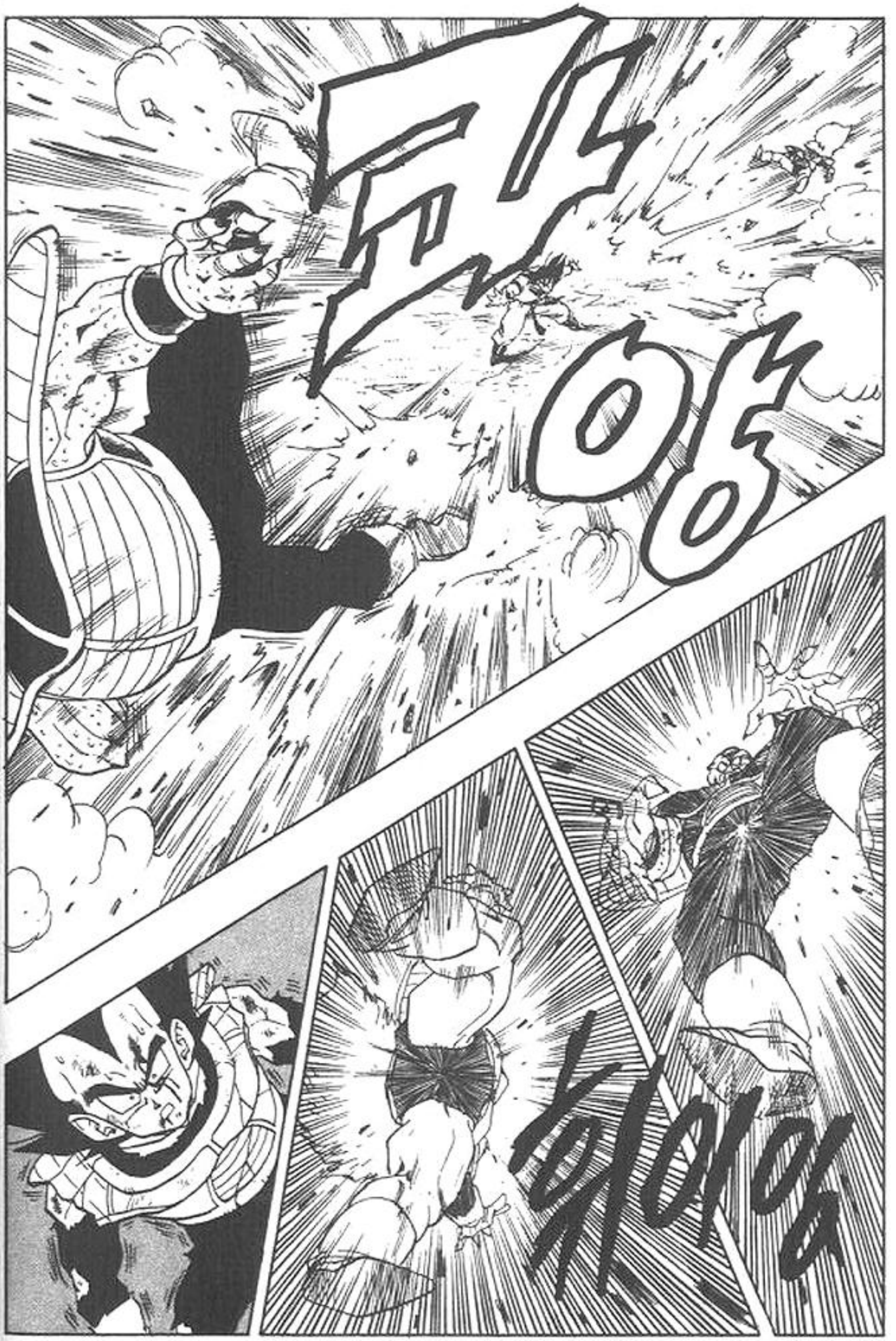
하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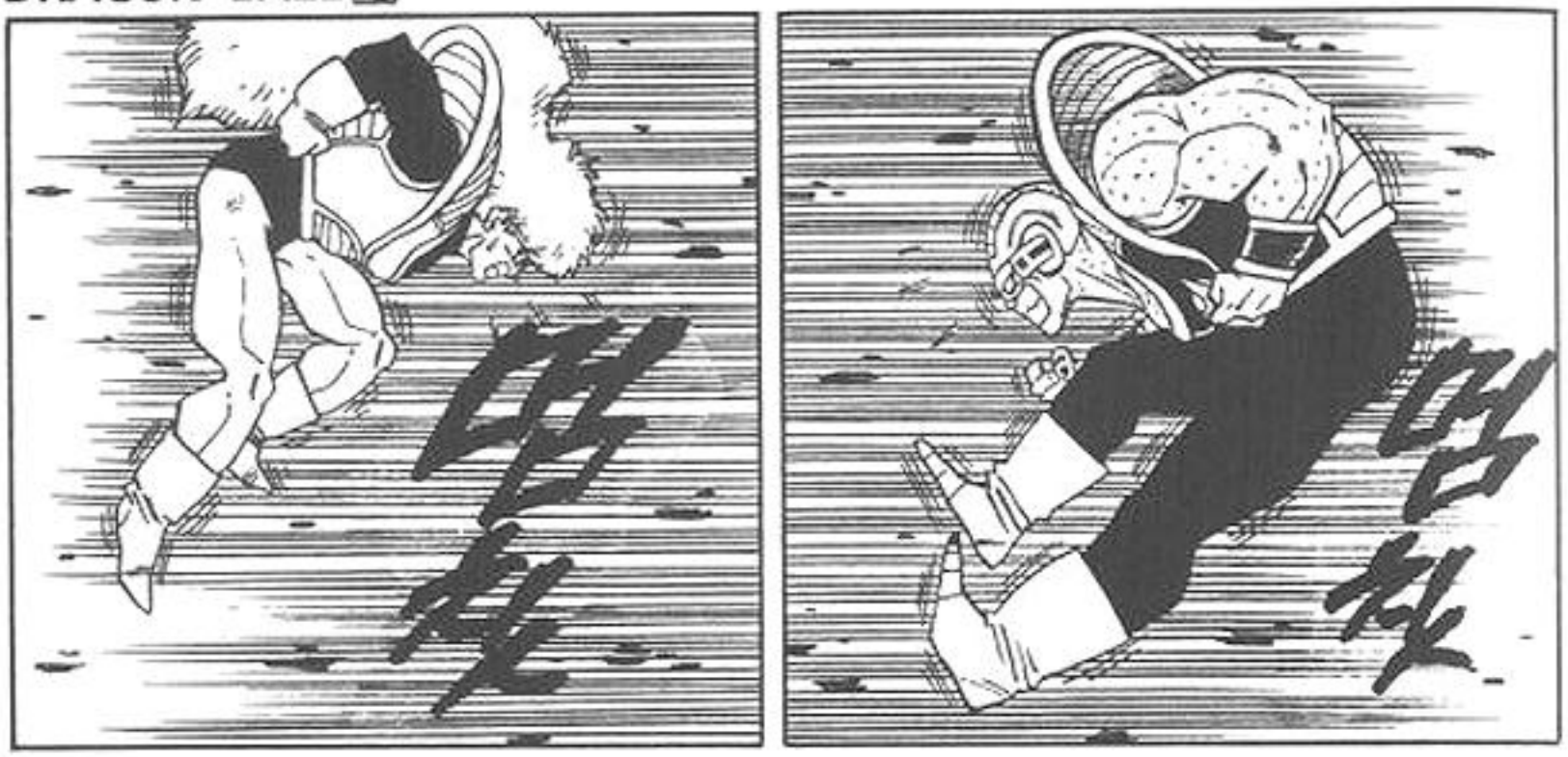



이,
이놈이…!




얏!!






뭐…
뭐야…!?
지…
지금 대체
무슨 짓
한 거냐구…!!


저…
저 두 사람,
생각보다
약하다는
느낌 안 들어?
그…
그런데…,
아… 아빠
한테 쪽도
못쓰고
있어….


저… 저건
기합만으로
날려버린
거야….
기…
기합
이다….

그… 그럴 리가 없지…. 저… 저놈들은 베지터 조차도 속수무책이었던 그 리쿰이란 놈과 비슷한 기를 가지고 있는걸….

오공이 너무 강해서 놈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겠지….

그… 그런가…? 아빠의 기가 훨씬 더 작은데….

어… 어떻게 된 거야…!

노…, 놈의 전투력은 틀림없이 5000인데….

카… 카카로트는 공격하는 아주 일순간에만 급격히 전투력을 높이고 있어….

아… 아마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스카우터로도 탐지가 안 되는 거겠지….

터… 터무니 없이 거대한 전투력이다….

어… 어떻게 저놈한테 저런 파워가….

지…, 진짜 열받았다…! 저런 내 방귀보다 못한 놈에게 무시를 당하다니, 내가 못살아…!

이봐, 지스! 들리나? 너, 크래셔볼을 쏴! 놈의 스피드라면 분명 피할 수 있겠지만….


첫…,
아무리 그래도
왜 저런 벌레
따위한테…,
알았어!


뻔할 뻔자지!
필사적으로 피할 때,
뒤쪽에서 박살내
버리는 거야!
놈이 아무리 빨라도
내 스피드는
우주 최고라구!
어쩌
려고…?




크래셔!


볼!!



쎄익
자,
어서 와라!
뭐,
뭐야!?
왜
안 피하는
거지!?

앗!?

앗!

쳐냈다……!!

아……

욱!!

칫!

제길——!!

엇!?

어, 어라!?



제282화
베지터의 복잡한 심정



뒤다,
바터!

우… 우주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나의 뒤로….

이,
이놈이
어느새…!

그럼 우주
제2의 스피드
아냐?

안녕.

뭐!?

바… 바터의 뒤로 돌아가다니…. 마…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아….

이… 이럴 수가…. 내… 내 크래셔볼을 쳐낸 다음에….

…이라 더군.

지구에서 지란 사이어인….

너…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엄청난 수련을 쌓았기 때문이겠지.

그런 소리해봤자 나두 잘 몰러….

헛소리 마! 사이어인이 어떻게 그런 스피드를 낼 수 있냐!?

도망다니다가
피곤해져
둔해지면
넌 죽은
목숨이다….

이놈~!
하, 하지만
스피드만 가지곤
평생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촐랑대며 도망만
다닐 뿐이겠지….

슈슈

어디
열심히
도망쳐
보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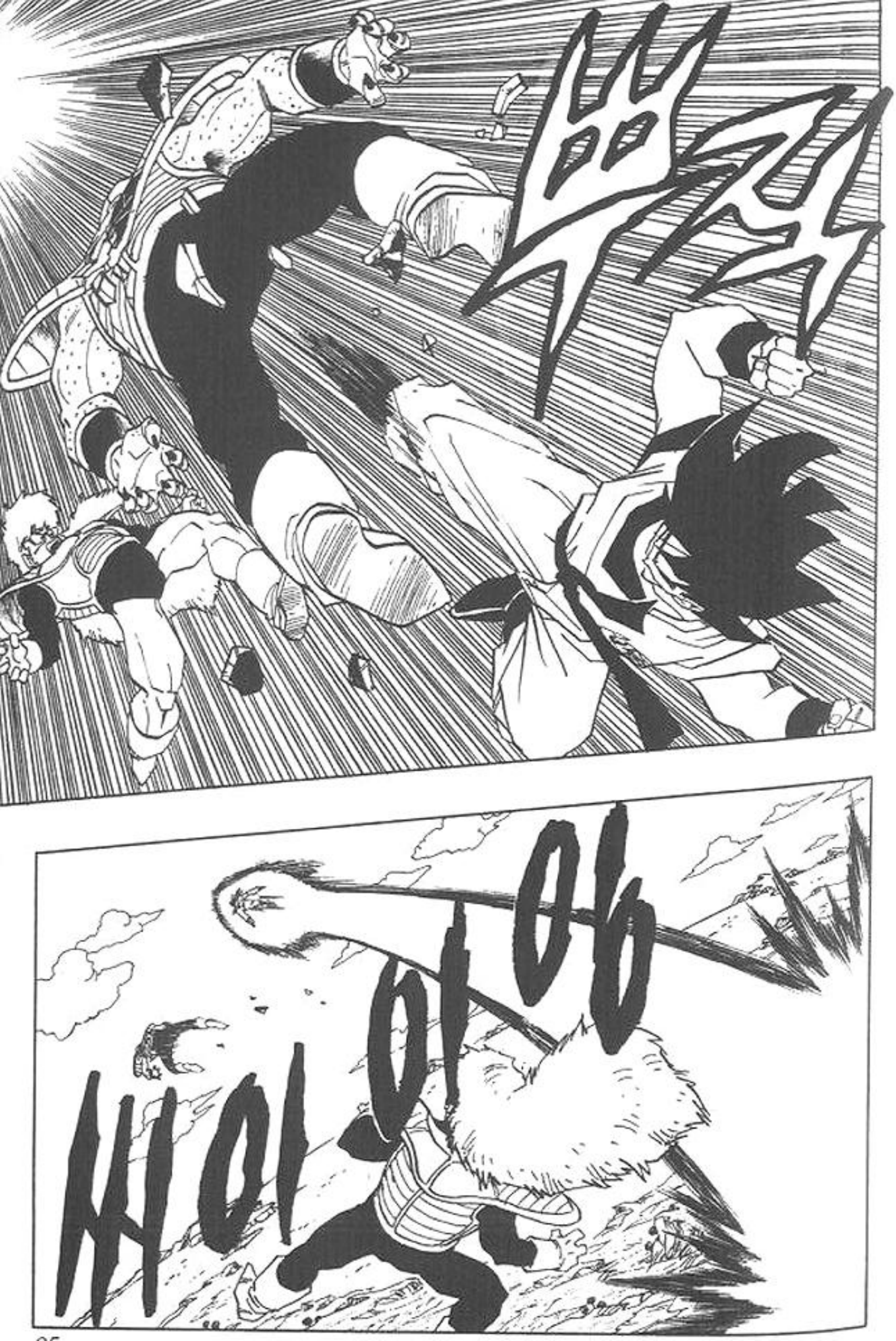
타앗!!

이야아
아압!!

기뉴
특전대원이
저런
피라미한테
창피를
당하다니,
못참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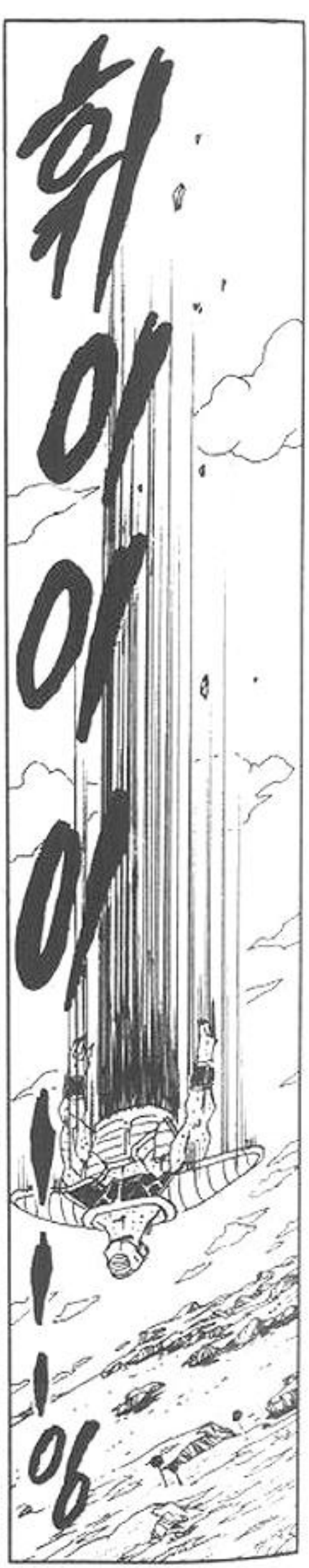
빌어
먹을-!!


!?
타앗!!


06




ドゴォ


ガ
ガ
ガ
ガ
ガ
ガ


ゴクウ!!
ゴクウ!!!

털…엉

세상에나,
웬일이니….

아…
아으….

그러니 어서
얘들 데리고
이 별에서
꺼져버려!

이놈이랑 아까
그놈은 아직
죽지 않았어!
이제 알았겠지!
쓸데없는 싸움은
그만두자!

끝내!
처치해
버리라구
—!

카,
카카로트!
뭐 하는
거야…!!

……

우… 우린 기뉴 특전대라구….

이… 이럴 수가….

저…, 전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정예만을 모은…, 5명의 초엘리트 부대라구…. 왜… 왜 저런 수준 낮은 놈한테….

의미없이 죽일 필요는 없잖아!

이놈들은 이미 초죽음이야.

크…!

쪼…, 쪽도 못써보고 당하다니….

아…, 악몽이야….

할 수 없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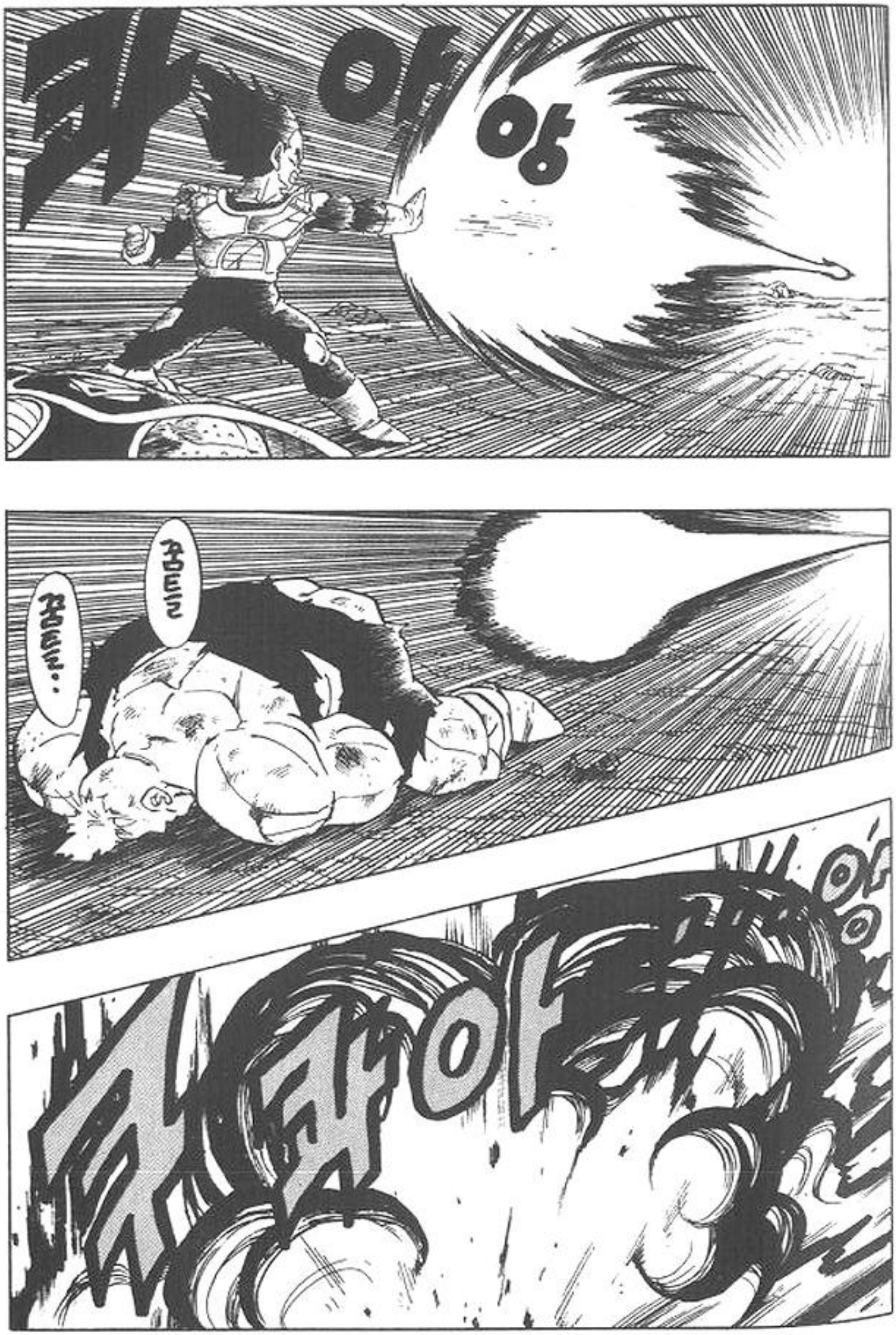
동료를 버리고 가다니….

앗! 도, 도망친다…!

퍼웅

제, 제길!


야…, 암마…. 너 진짜 오공 맞냐…?
오공 이냐구…?
…….
앗!
베, 베지터!
무슨 짓을!!


AH
OH
OH

이놈들은 더이상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구!

무슨 짓이야! 끝장낼 필요는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

쿠구궁...

뭐 하러 한 마리를 눈 앞에서 놔준 거야! 지금의 너라면 그놈도 쉽게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진짜 열받네. 네놈의 인정머리에는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다….

초사이어인…?

아무래도 넌 완전한 초사이어인은 되지 못한 것 같구나….

넌 프리더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몰라서
그래!

압도적으로 강해진 건
자랑스럽겠지만,
이따위 정신 상태로는
프리더를
절대 이길 수 없어!
불사신이라도
되기 전에는!

저기군요,
후후후….

……

다음은, 제283화 기뉴 대장 등장!!

그런데도 프리더란 놈한테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스스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난 엄청나게 강해졌다고 생각해….

그렇다! 싸우려면 각오해야 될걸. 프리더의 파워는 아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구!

그럼 싸워보셔….

지, 지금 오공의 위대함을 똑똑히 봤잖아! 저… 저놈들이 쪽도 못썼다구. 오공한테 이길 수 있는 놈은 이제 없잖아…!

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심한 허풍 아냐…?

悟


아, 아니야.
그놈은 아직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
뭐?


이러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승산은 없다.
놈을 만나지
않기만
빌 뿐…!
더구나 프리더는
지금쯤 드래곤 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거야….


그게 뭐지!?
드래곤 볼이
모아지면 뭔가가
나타나는
거야!?
용신…!?


아까부터 계속
밝은 상태
그대로야….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닌가…?
마…, 만약
이곳의 드래곤 볼도
지구 것과 똑같은
거라면 신룡이
나타날 때 어두워질
거잖아!?


어떻게
그걸
알지?
뭐라고!?


얘들아!
죽은 친구들을
다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그런 게….
주문
이라고
—!?
만세!


7개 모두를
모으면 그걸로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
거라구!
아직 우리의
소원을 이룰
기회가
남아있어!
그래,
알았다!
그놈은
주문을
모르는
거야!


굴드와 리쿰, 바터도 당했다고?!
뭐, 뭐라고 -!?
그… 그렇지만 실제로…
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뉴 특전대보다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프리더 님 뿐이야!
헛소리 마! 우리는 기뉴 특전대라구!
예… 예…, 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놈이라서…
……

헛소리 마!
그런 쪽팔린 말을
어떻게 하라구!

프…
프리더
님에게
연락을….

세 사람의
전투능력 수치가
사라진 건
스카우터의
고장 때문이
아니었단
거냐…?

너… 너
이놈….

이 기뉴 대장이
직접 전투가
뭔지 시범을
보여주마….

프리더 님이
외출하시길
다행이다….

지스,
드래곤 볼을
숨겨둬라.
잃어버리면
프리더 님에게
박살나.

부, 부탁
합니다!

탁
탁

기뉴 특전대 출동!

묻어두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찾을 거예요.

좋아-! 그럼 가자! 그놈에게 나의 무시무시한 힘을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용서 못한다…!!

절대 용서 못해~!!

……

여…, 역시 둘이서는 스페셜 파이팅 포즈가 폼이 안 나….


피유우
피유우


프리더를
쓰러뜨릴 작정
아니었나?


계왕님한테도
프리더와는
절대로
싸우지 말란
얘기도
들었고….
가능하면 그러고
싶었는데….
우선은 너한테 죽은
지구 친구들을
모두 살려내는 게
먼저야….


그보다는
내가 영원한
생명이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줘….
그런 쓸데없는
소원을 이루어봤자,
지구는 곧 통째로
프리더한테 박살나서
모든 게 헛수고일
텐데….


베지터…,
너라면 놈들을
잘 알겠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드래곤 볼을
쉽게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엉!?

농담도 심하셔!
너, 너 따위에게
그런 소원을
이뤄주면 프리더랑
마찬가지가 되잖아!

그…
그놈이나…!
이거 분명
위험한걸.
오…
오공….

나타나셨구만.
네가 놔준 지스가
기뉴 대장을
데려오는
거야…!

두 개의
전투력이
이쪽으로….

기뉴 녀석이
드래곤 볼을 갖고 있던
우주선 위치에 분명
있어야 할 텐데….

잠깐…!
프리더는
어디
있지…!?

저쪽 방향의
먼 위치에 강한
기가 느껴져….
아마 그 녀석이
프리더겠지.

뭐!?

이번엔 아무리
너라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닐걸.

그… 그랬군…! 프리더 녀석, 소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 나메크성인한테 방법을 알아내려고 간 거야…!!

최고장로 님쪽이야…!

크…, 큰일 났다…!!

저, 저 방향은…!

최고장로님이 죽으면 드래곤 볼도 없어진다는 것을 몰라!

그, 그놈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내면 최고장로들을 죽일 텐데!

뭐!? 아직 살아남은 나메크성인이 있었단 말야!?

후시 이곳의 드래곤 볼을 만드는 사람 아닌가…?

그래! 그 최고장로야. 크, 큰일났네!!

뭐…!

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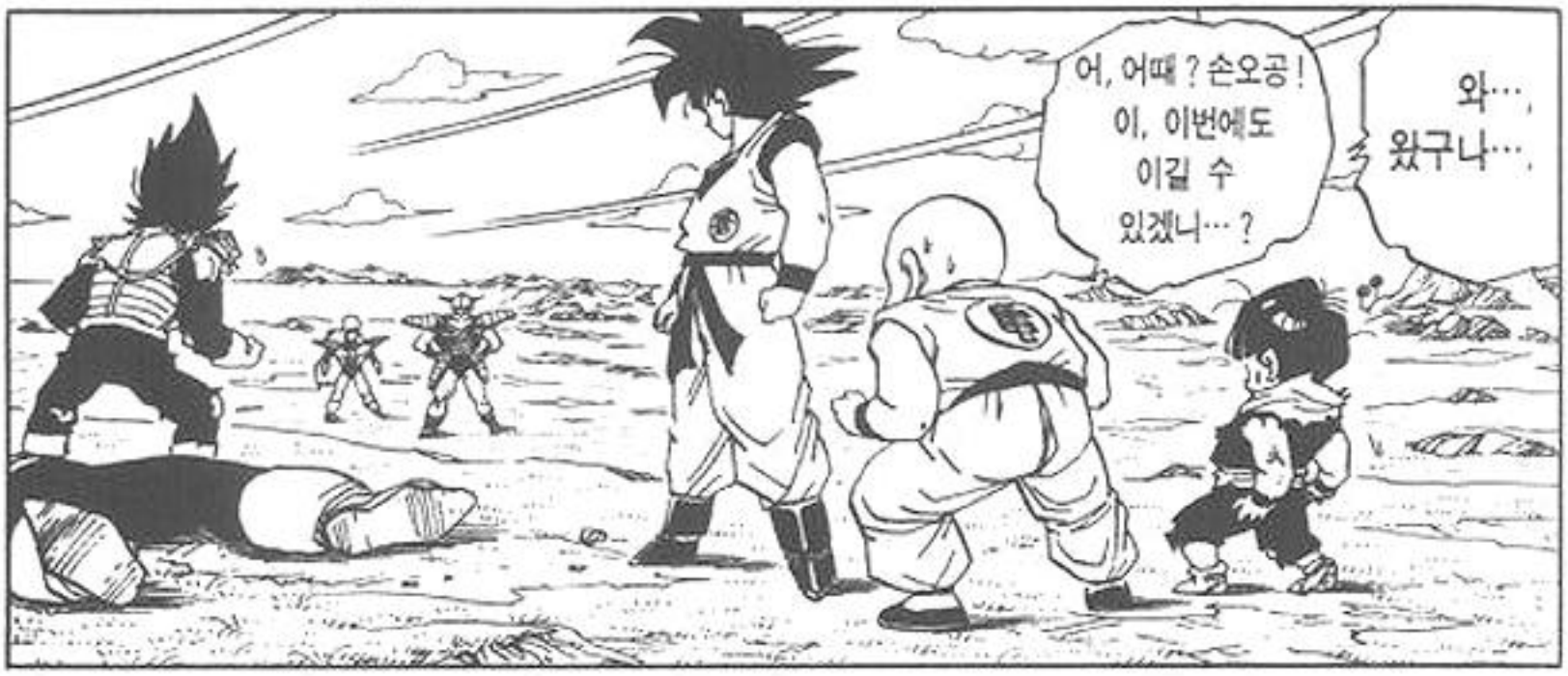
큭…!

!!

타닥

타닥

아까는 잘도 까불었겠다!
기뉴 대장님이
몸소 니들을
손봐주실 거다…!


와…, 왔구나…,
어, 어때? 손오공! 이, 이번에도 이길 수 있겠니…?


그래…, 바로 저 놈인가…?
전투력은 약 5000….


싸워봐야 알지.
역시 이번에 온 놈은 파워 수준이 완전 틀린 놈이니까….


스카우터의 수치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지.
저놈은 아마 순간적으로 전투력을 대폭 올린 게 틀림없어. 그런 타입이겠지….


그렇죠? 겨우 5000인데…, 이상하죠!?
엄청한 놈…!

우리하고 같은 돌연변이로 태어난 초천재 전사일지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아니…, 60000!? 놈은 사이어인이에요! 60000이라니, 사이어인은 제가 듣기론 기껏 해야…!

내가 보기에는 저놈의 실력은 전투력 60000정도 같아….

이 기뉴 님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드디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거 난생 처음 겪는 멋진 싸움이 될 것 같구나….

버, 벌써 죽었을 지도…!

서, 서두르지 않으면 최고장로님이 죽을 지도 모르니…!

아, 알았어…!

저 녀석은 내가 맡을게.

너희들은 드래곤 레이더로 구슬을 찾아! 아마 놈들의 우주선이란 것에 그냥 놔뒀을 거야….

저놈들을 쓰러뜨리는 게 가능하다면 나도 곧 갈 테니까.

아무튼 서둘러!


칫…,
알고
있었구만….


베지터,
너는 나머지
한 놈을
맡아라.
죽다 살아날 때까지
싸웠으니 파워가
훨씬 더 강해졌겠지.
이제 이길 수 없는
상대는 거의 없을걸….


그리고
조심해!
됐으니까
어서 가!


지…,
진짜…?
……


저런
피라미는
냅둬!
도,
도망
쳤다…!
파바바
힘내라,
오공!

좋아-!!
우리도
붙어보자!

悟

어디,
어느 정돈지
보여주셔…!











다음은, 제284화 기뉴 대장의 자존심


파아

에잇!!

우우웅

휙 휙

탁

퍽퍽퍽퍽

퍽퍽퍽퍽


팍
파팍
탁
타악
어이쿠~.
제, 제길. 베지터 자식….
역시나! 이놈은 생각보다 훨씬 솜씨가 있는걸….
크크큭! 그만큼 베지터 놈이 도망친 게 네겐 좀 약점이 되겠지….

이놈과 빨리 승부를
내지 않으면
모처럼 생긴 희망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겠어….

그 자식…. 나를
이 녀석과 싸우게 하고,
그 틈에 자긴 드래곤 볼을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야….

잘만 되면 두마리 다
서로를 박살내줄 지도
모르지…!
그러면 모든 게
내 차지다!

크크큭!
정말 멋진
전개가 됐어!
카카로트와 기뉴의
실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만
손에 넣게 되면
프리더와의
싸움에 승산이
생긴다구!

후하하하!
그 꼬마들한테
소원을 이루는
암호만 알아내면
처치해버릴 거다!


좋아-! 모처럼 등장한 건데, 미안하지만 단숨에 처치해야겠네!
悟
호우~! 상당한 자신감인걸. 후하하하…! 이 기뉴 님이 그런 소리 듣는 건 생전 처음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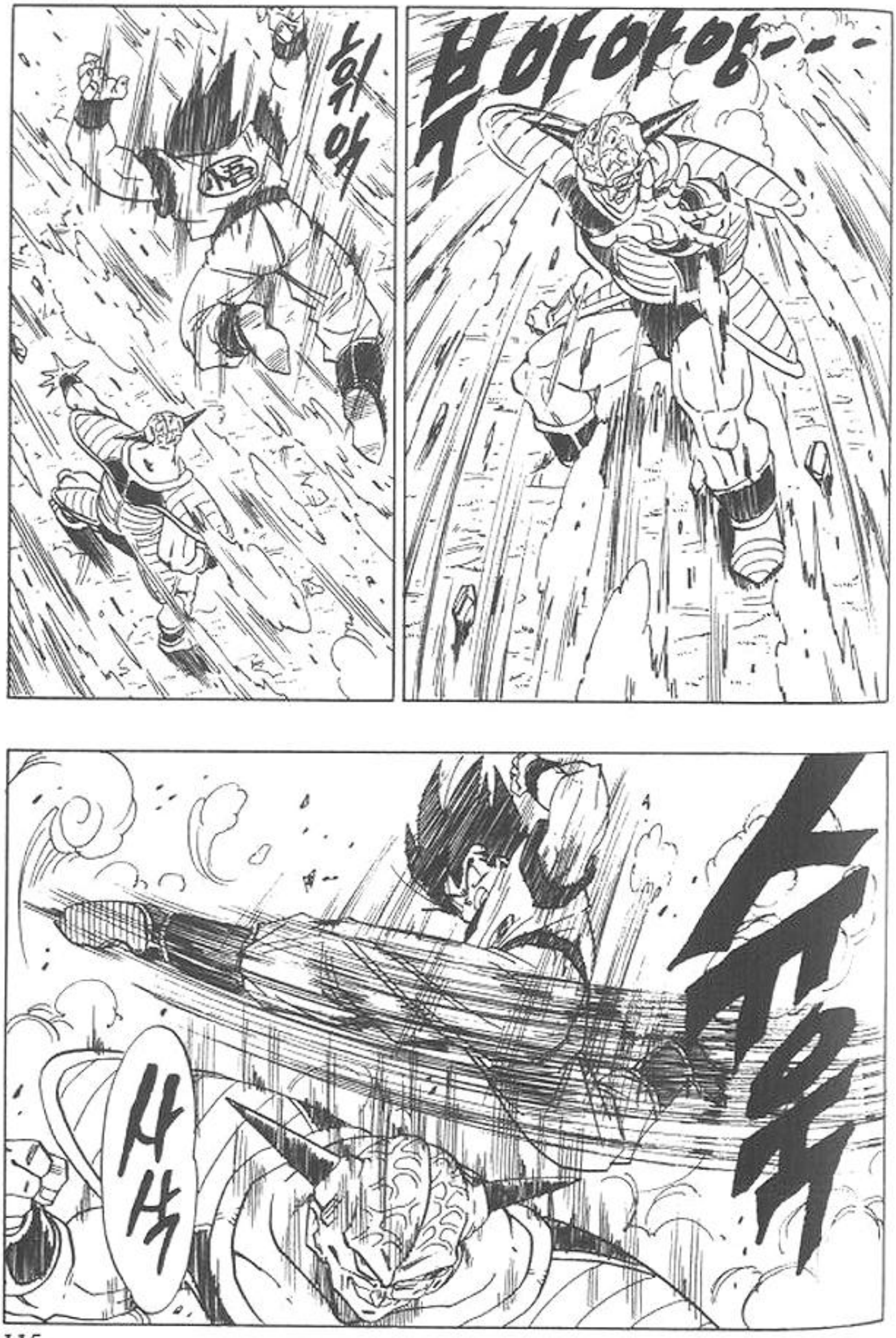

사실 나도 전투력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타입의 인간이야…!
방금 한판 붙은 걸로 그렇게 까불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알아….


기뉴 대장의 최대 전투력은 훨씬 더 높아!
당연하겠지…! 만약 저놈의 전투력이 확실하게 600000이었다 해도….
과, 과연 기뉴 대장답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위험하다!!
!!




부아아앙---
휘액
사사


야앗!
푸슈
타악


!!
스피드는
나보다 한수
위잖아!
빠르다!



앗!?

사양

큭!!

후하하하!

멋지게 동작을 봉쇄해 버렸어!!

대장,
이젠 우리
승리예요!

박살내
버립시다
…!

윽…
크으윽…!

다…,
당했다
…!

하…,
할 수 없지…,
그, 그렇다면
계왕권으로…!!

무… 무시무시한
힘이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아니…!?

대,
대장…!?

그리고, 너…!

……

다시 한번 쓸데없이 까불면 너부터 없앨 테야!

누가 너보고 참견하라고 했나, 지스-!

그럼 진짜 힘을 보여 주지….

알았다….

아마 프리더 님과의 대전에 대비해서 힘을 아끼는 모양인데, 날 물로 보지 마라!

너 또한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어!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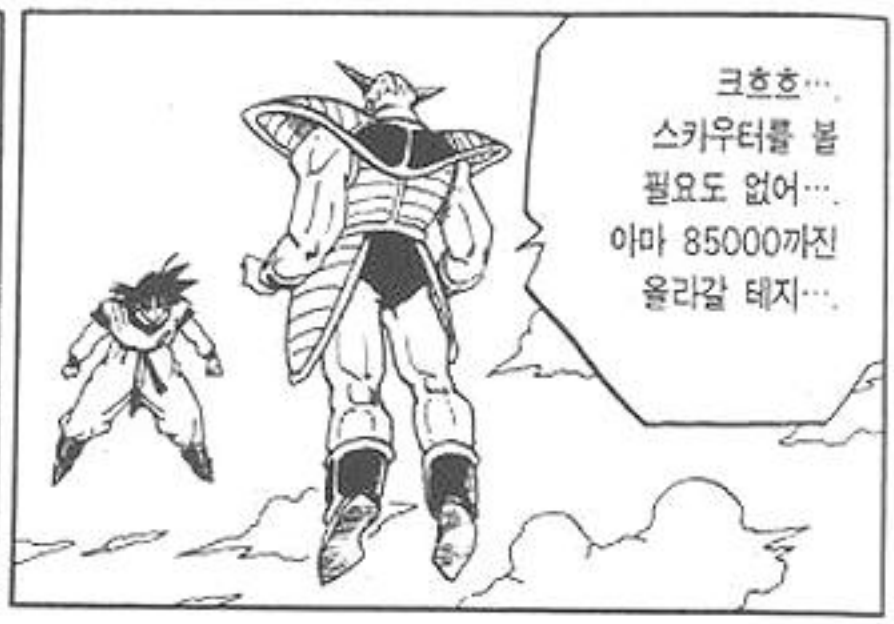
상대의 파워를 알 수 있는 그 기계로 내 파워 수치를 잘 재보시라구….

그게 좋을걸.

힘을 아끼다 죽으면 억울해서 미칠 테니까.

신기하게도 이 싸움이 재미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단 말야. 쓸데없는 짓 말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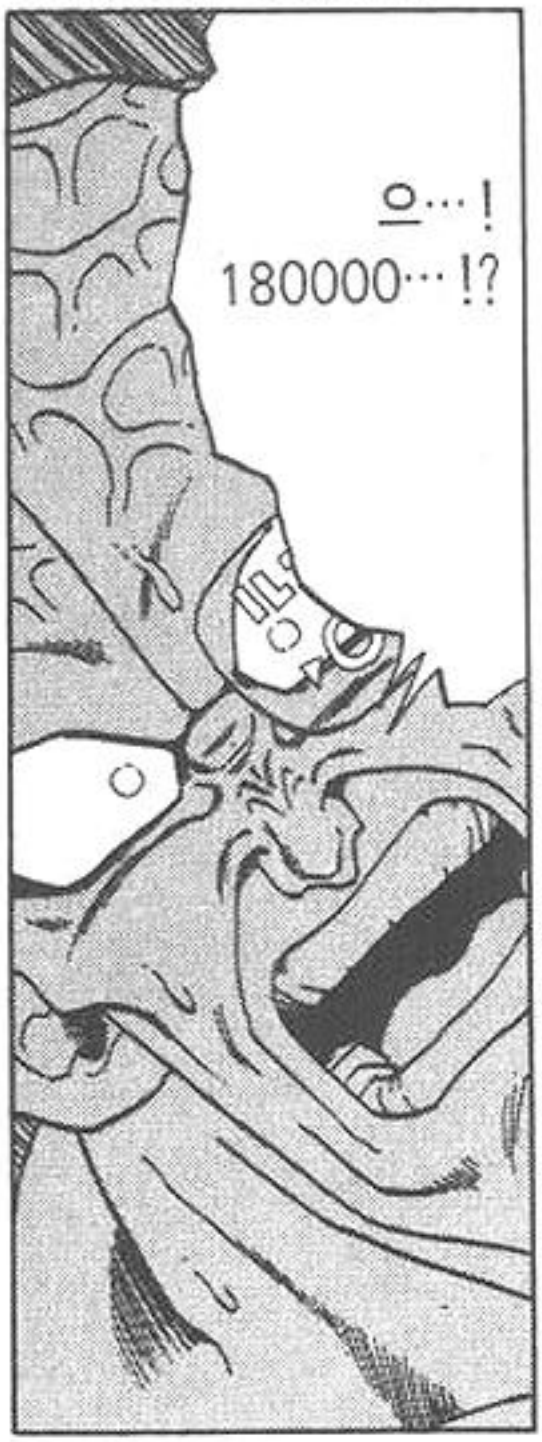




다음은, 제285화 위기의 최고장로



120000….
130000….
140000….
아…
아직도
올라가다니…!
이…, 이런
160000….
이…
이럴
수가….
못믿겠어….


으…!
180000…!?




미…, 믿을 수 없다…!
이… 이게 진짜 네 파워냐…!?

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했다….

기… 기뉴 대장조차도 최대 전투력 수치는 120000 인데….

어… 어떻게 사이어인이 저렇게까지….

분명히 말해 두지!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은 아직 멀었다.

뭐… 뭐라고 …!!

후….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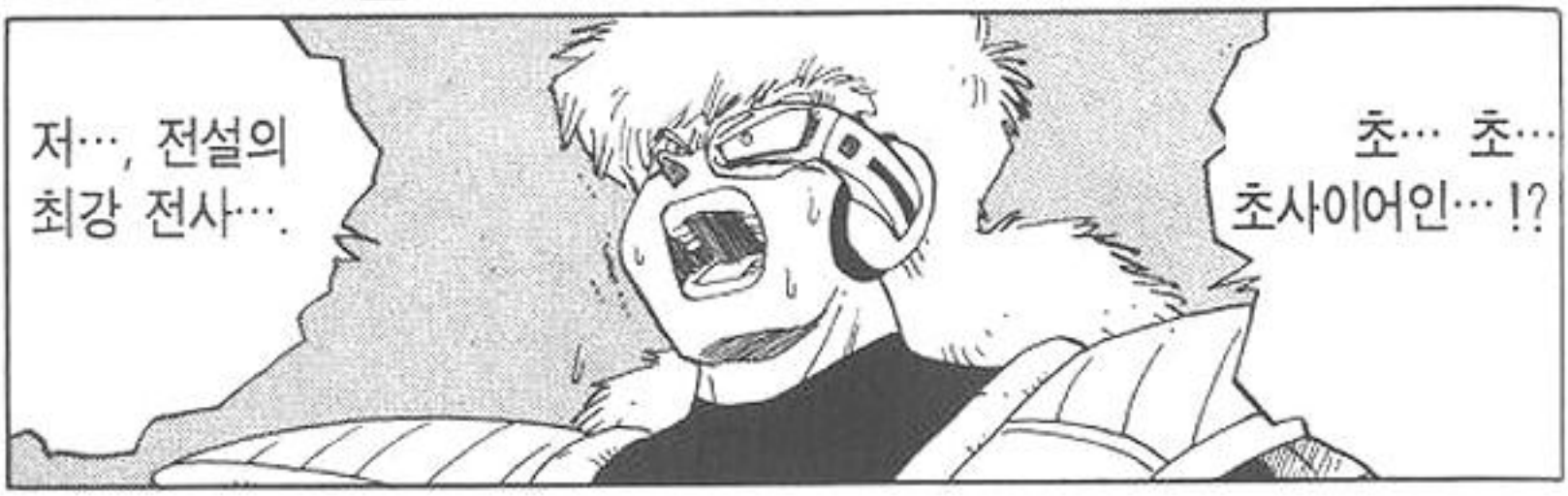
서…, 설마…! 설마 넌….

초사이어인 이냐…!?

!?

분명 베지터도 그러던데….

난 그게 뭔지 전혀 모르겠는걸….


저…, 전설의
최강 전사….
초… 초…
초사이어인…!?


프…
프리더 님이
단 한 가지
두려워하던
초사이어인
이란
말야…!
저…
저놈이…,
저놈이….


이야야야—
!!
옴마야!
이게
웬일
이냐!


난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고
싶다.
미안하지만
넌 내게
이길 수
없어.
너희들은
이 별에서
빨리 꺼져.
悟

진심이다.
특히 너는
생각보다
솔직하고 괜찮은
전사야.

너, 너!
그걸 지금
제정신
갖고 하는
소리냐!?

뭐…
뭐라고…!?

초… 초사이어인은
피와 전투를 즐기는
전우주 최강의
전사인데….

죽이고
싶지 않아?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고 싶다고…!?

……?

그…
그래…!
넌 초사이어인이
아니야!

완전한
초사이어인은
될 수 없는
거라구!

흐흐흐…!
엄청나게
강하다구….

하지만
적어도
나보단
훨씬 강해….






남아있는
나메크성인은
저기 있는 3마리
뿐이군요….
과연….


역시 마침내 이곳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제 금방 도착할 겁니다….
…아….
아….

그 지구인들은
널 필요로 하고 있어요….
힘을 이끌어냈으니까
금방 갈 수 있을 거예요….

가세요,
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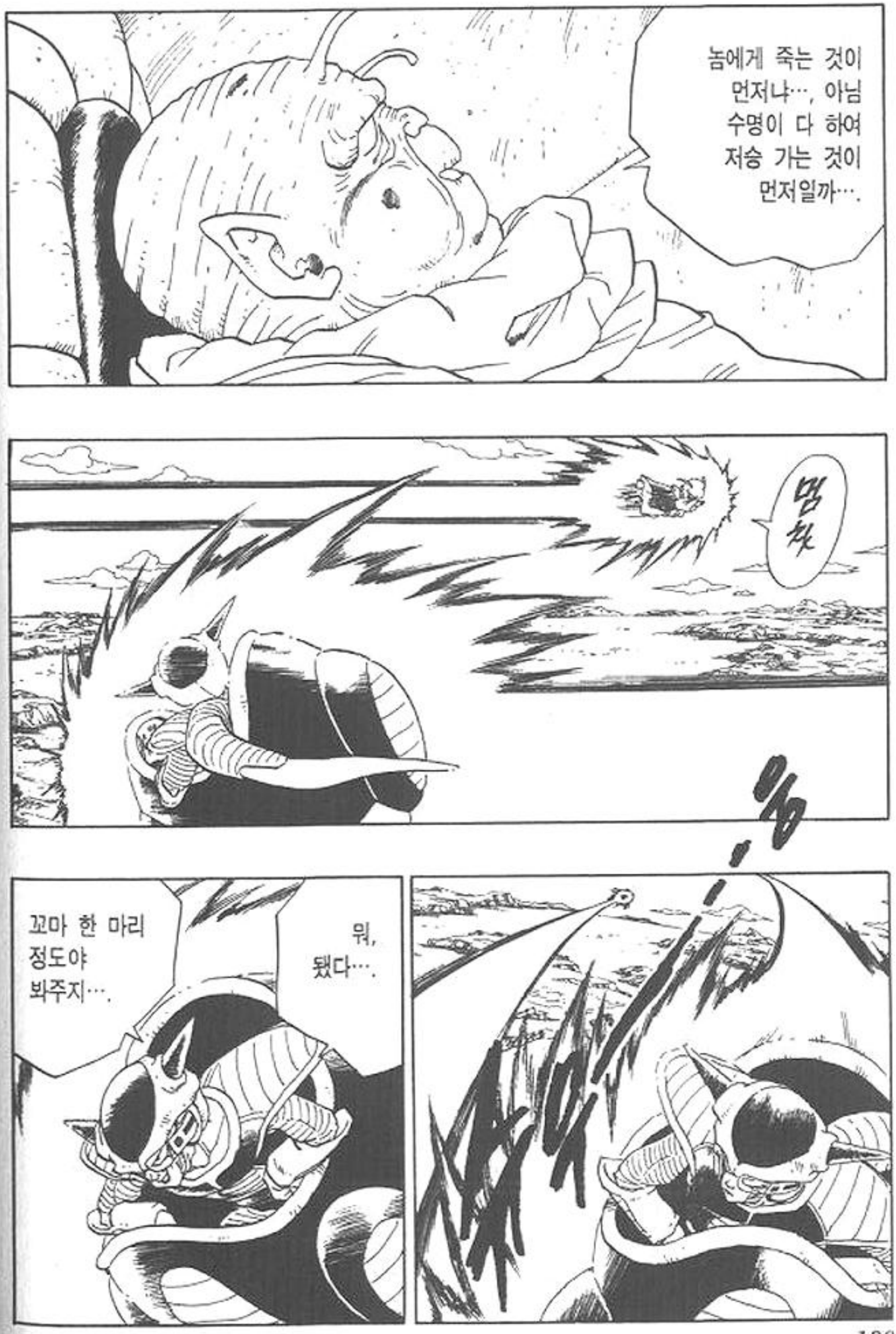
최…
최고장로님!
제… 제발
부디 무사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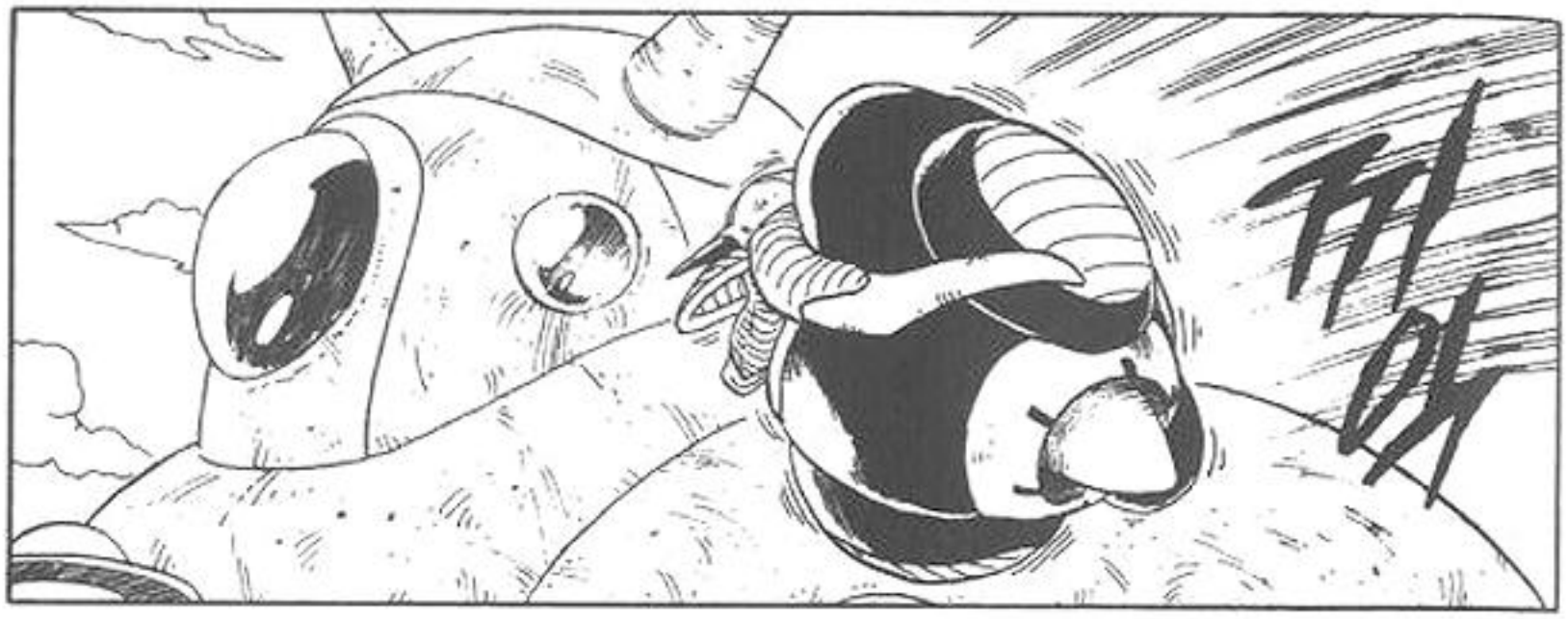
아…,
알았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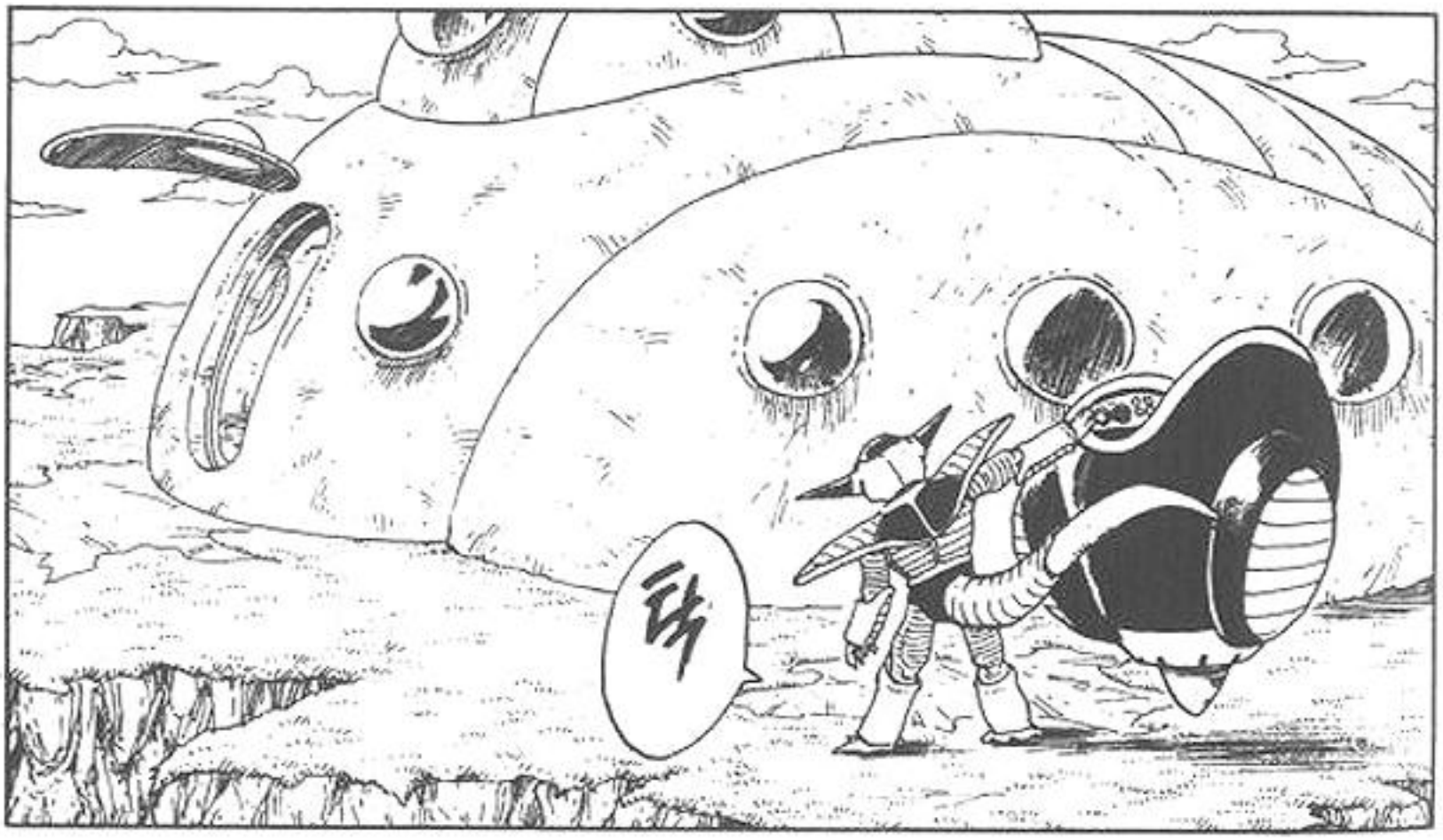
그…
그렇지만
….

어서
가야
해요…!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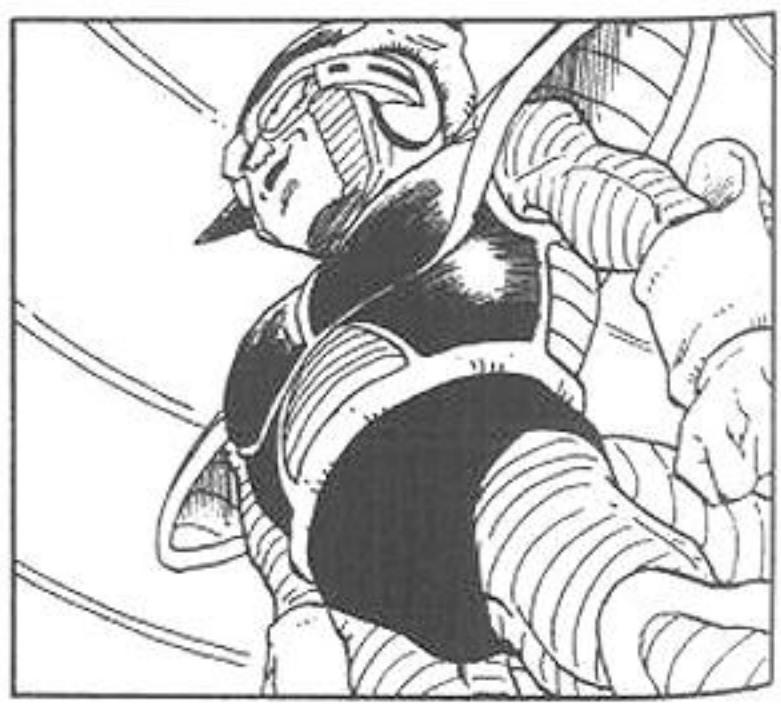

놈에게 죽는 것이 먼저냐…, 아님 수명이 다 하여 저승 가는 것이 먼저일까….
멈칫
뭐, 됐다….
꼬마 한 마리 정도야 봐주지….




탁


무슨
일이지?





난 프리더란 사람으로, 당신들의 드래곤 볼을 모아서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인데요….

드래곤 볼을 7개 다 모으긴 모았는데, 어떻게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몰라서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소원이 이루어 지나요…?

돌아가길 바란다….

사악한 자에겐 가르쳐줄 수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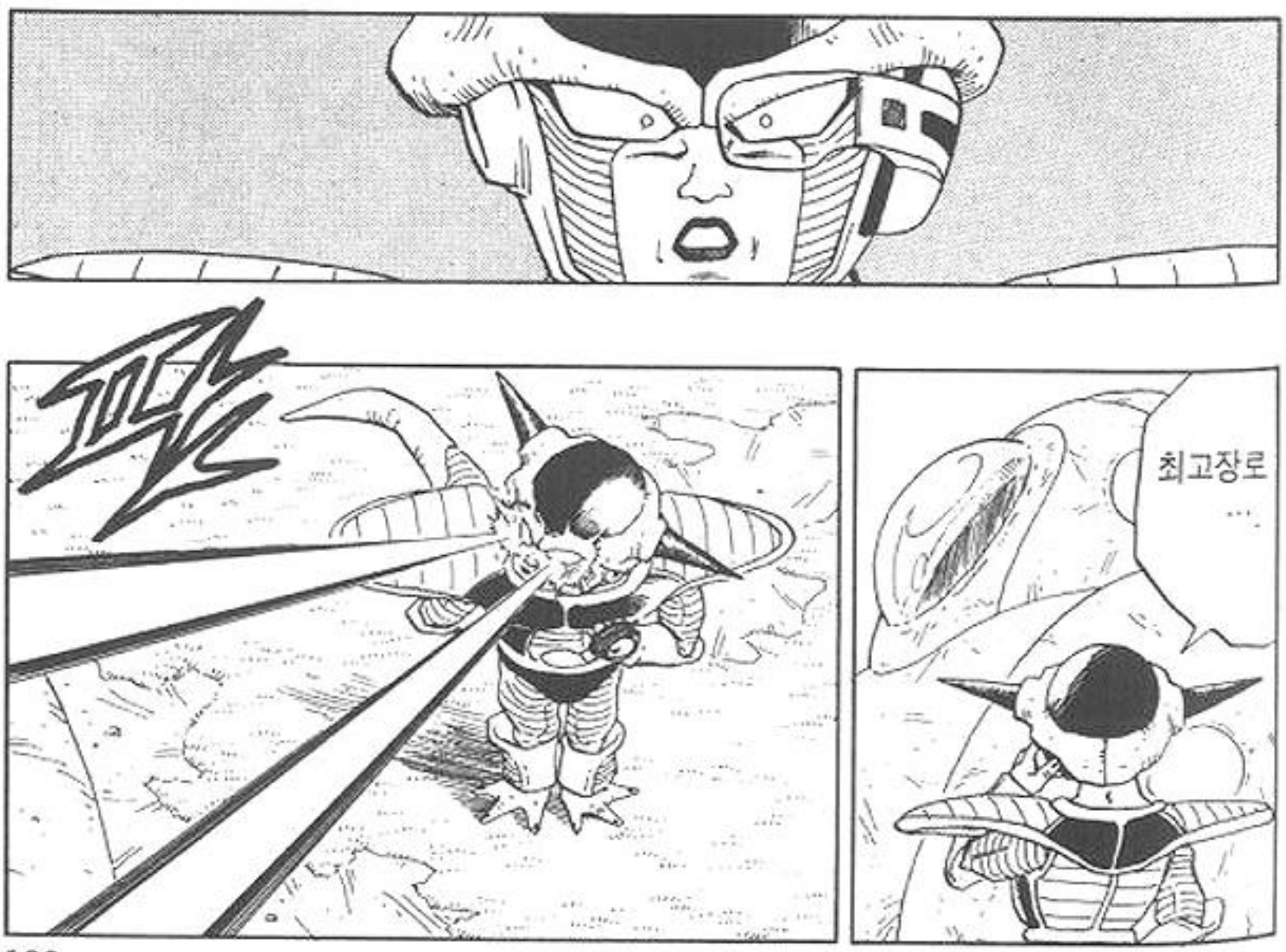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을 죽일 만한 이유는 없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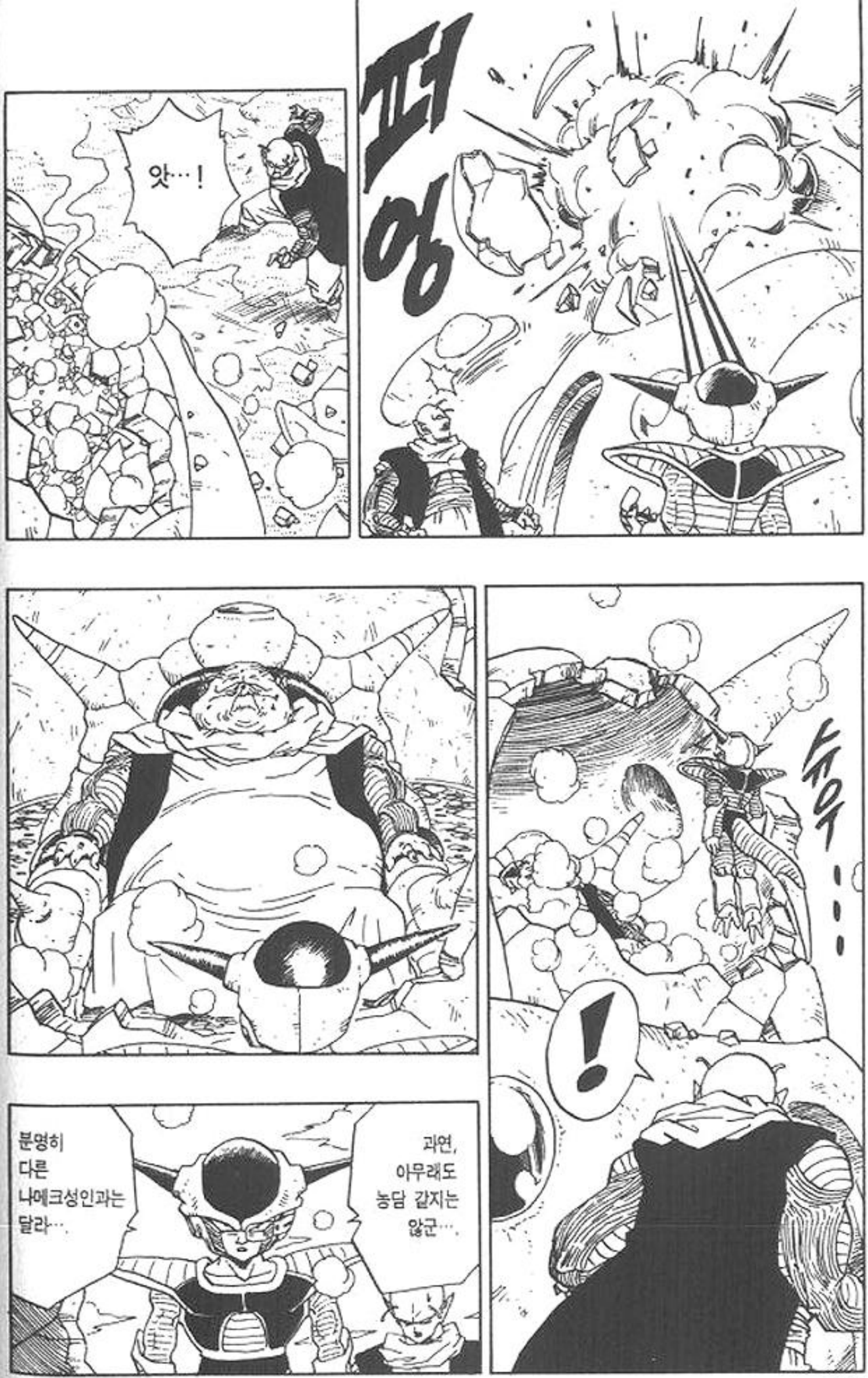
두 명이 있죠? 어느 쪽이나 한사람한테는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마음대로 해봐….


집안에 계신
또 한 분은
이 나메크성의
최고장로님이시다.
드래곤 볼은
저 최고장로님이
만드셨지….
하지만
싸우기 전에
이 말은
해두지.


똑똑히
기억해 둬라!
만약 최고장로님을
죽이면 드래곤 볼도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호오!


최고장로
…



퍼엉
앗…!
슈우…
!
과연, 아무래도 농담 같지는 않군….
분명히 다른 나메크성인과는 달라….

그는 이 별의 유일한 전사형 나메크 성인이다.

네일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쓰러지진 않아….

너희들이 죽인 나메크성인들과는 달라….

최고장로 씨…. 당신도 내게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하지만 이쪽 사람이 죽게 된다면 입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을 거요….

알았습니다….

네일….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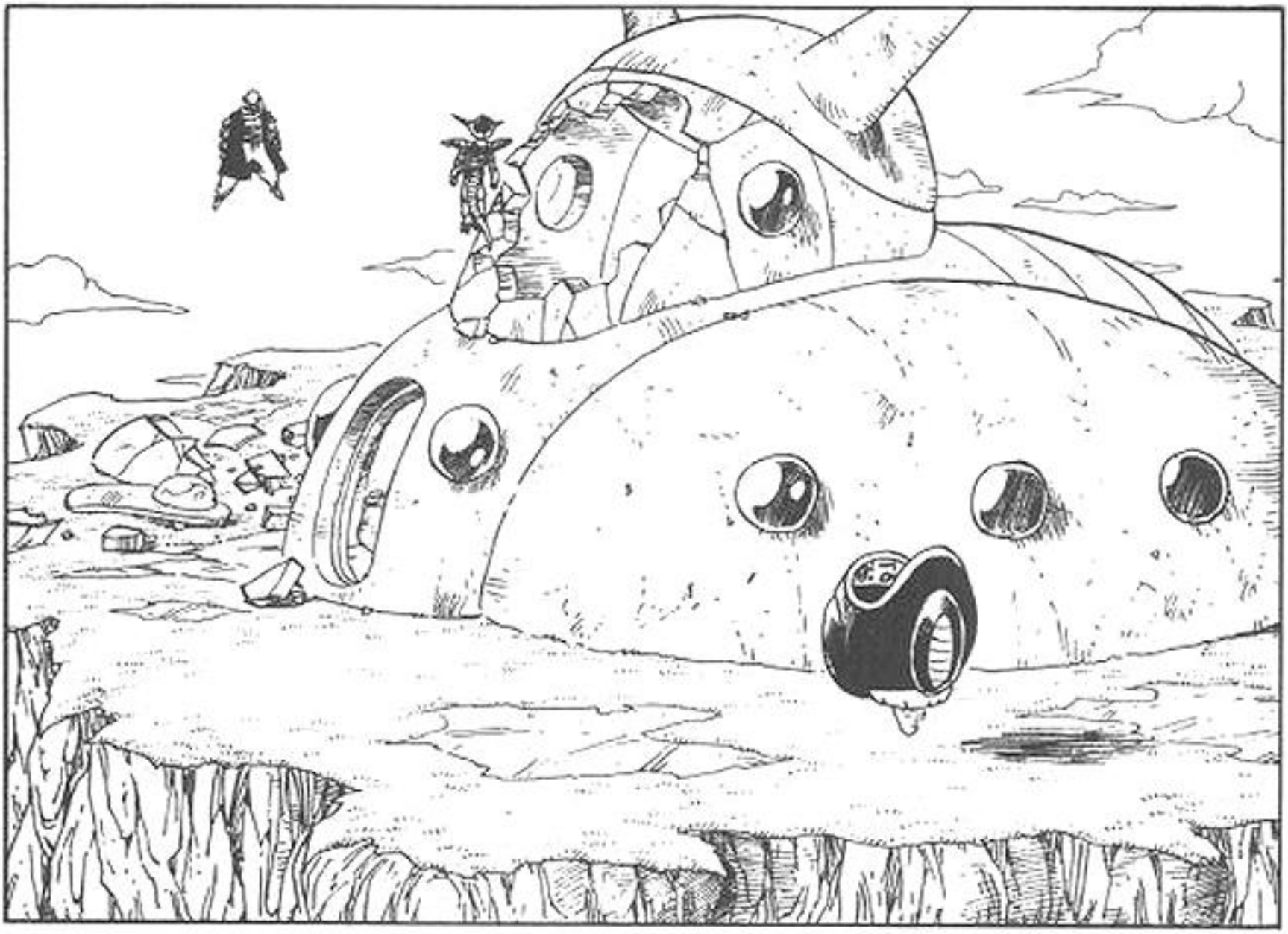
절대 가르쳐줄 생각은 없는 것 같군요….

……

전우주 최고인 나의 무서움을 보여 드리죠!

좋아요…!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다음은, 제286화 나메크성의 전사 네일




이제 곧
드래곤 볼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지겠죠….


호호호….
설마 내게
싸움을 거는
멍청한 놈이
있을 줄이야….
정말이지
분수를 몰라도
진짜 모르는
군요….

다치지 않고 실토하는 게 좋았을 거란 후회를 할 겁니다….

눈치 챘을 테지만, 최고장로님은 이미 수명이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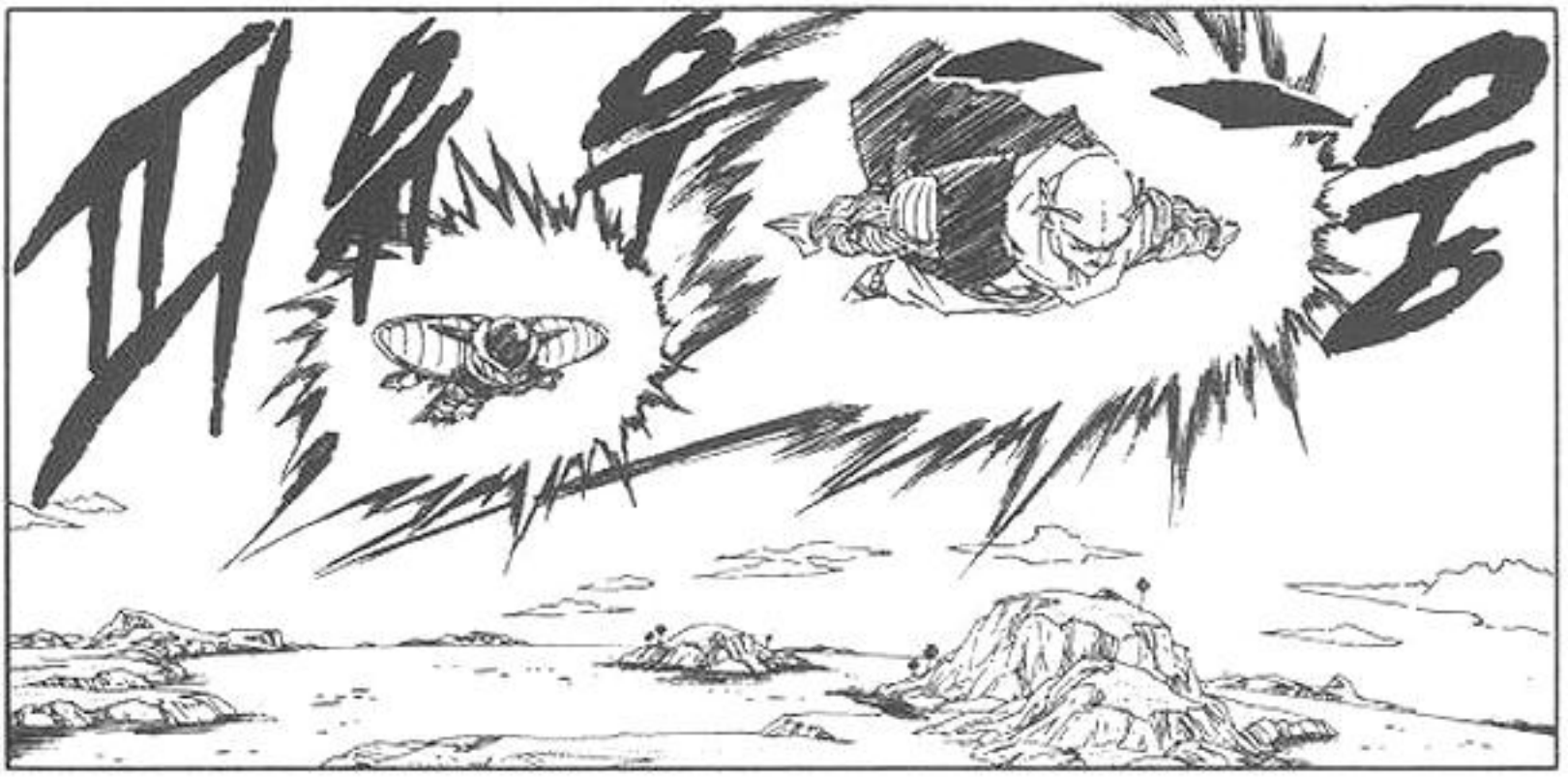
만약 최고장로님이 말려들면 너한테도 손해겠지…. 장소를 바꾸자.

호호호! 그 정도로 격렬한 싸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뭐 맘대로 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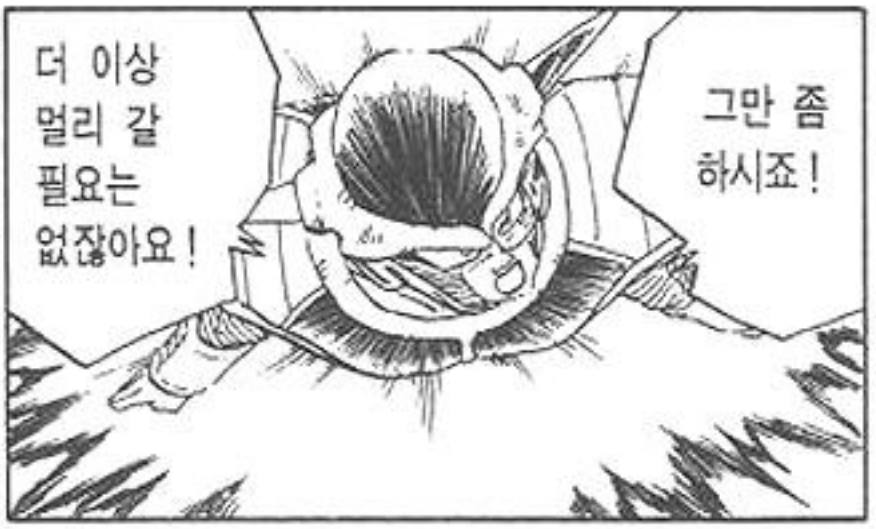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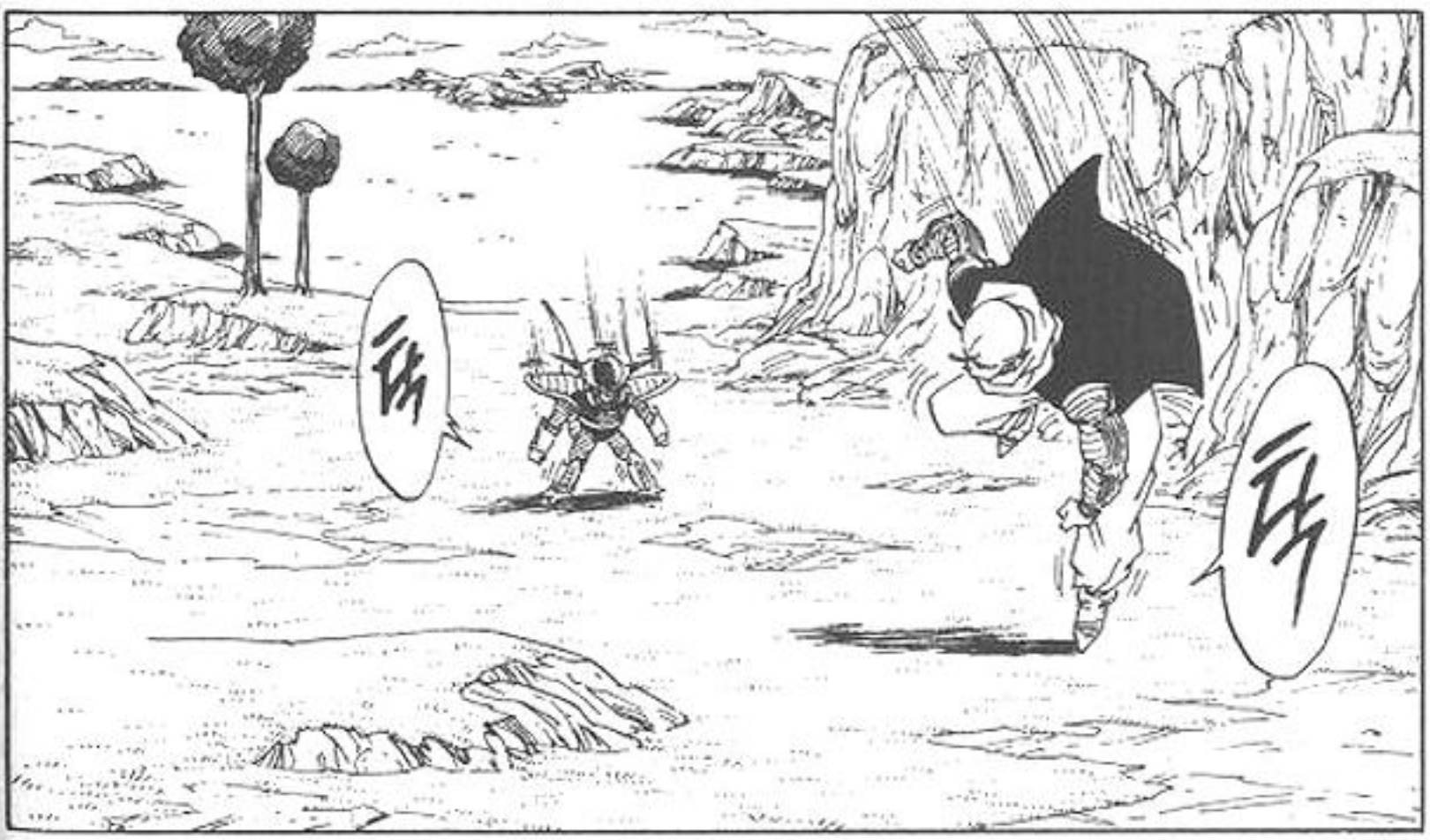
네일…, 미안하구나. 제발 어떻게든 덴데가 그 지구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만 버텨다오….

이젠 이 별의 운명도 그들 손에 달려있는 거야….


피융


.....


더 이상 멀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만 좀 하시죠!


타
타


퍽
아무래도
이 별 분들은
죽고 싶어
안달이 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우우...


저것

이건 대단한걸!
전투력 42000까지
올라갔네요.

호오!

참고삼아,
지금부터 당신이
싸우려하는 나의
전투력이 얼마인지
알려줄까요?

이거 놀라운걸요….
대단한 전투력입니다!
역시나 전투형이란
이름값은 하네요.

과연!
분명 지금까지의
나메크성인과는
전혀 다른 것 같군요.

내 부하로
삼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물론 풀파워로
당신과 싸울 생각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전투력은
530000입니다!


욱!


나는
이 왼손으로만
상대해 줄게요.
조금은 재밌는
한판이 될지도
모르죠!
맞다!




다쳐—
!!!
OFF
OFF


하아앗
—!!
!!
역시
42000은 겨우
이 정도군요….
큭…
!!


꽈악
!!
으윽…!
으악…!!
으아아아
아아악-!!
지끈…

파이어

으가아아
아악-!!

이런, 이런.
이거 실례
했어요.

아으으…
으윽…!

아으으
…!

크…!

저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시죠!

역시
안 죽은 동안에
실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허헉!
허헉…!


아아아…!!
쑤욱
허참! 정말 재미있네요! 재생이 가능합니까?
하지만 원래대로 재생해봤자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체력까지는 이미 회복할 수 없겠는데요. 전투력이 아까보다 떨어졌어요….
그만큼 실력차를 맛보면서도 아직 개길 생각인가 보네요….
못말려…. 이 별 애들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헉
허억
꿈틀 꿈틀

왜 웃고 있지…!?

네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기뉴 님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

그런데 왜 웃느냔 말야…!

그… 그렇구나! 기뉴 대장은…!!

후후후….

우하하하 하하…!!


역시
맞다…!


퍽
아!


저스!
내 스카우터를
갖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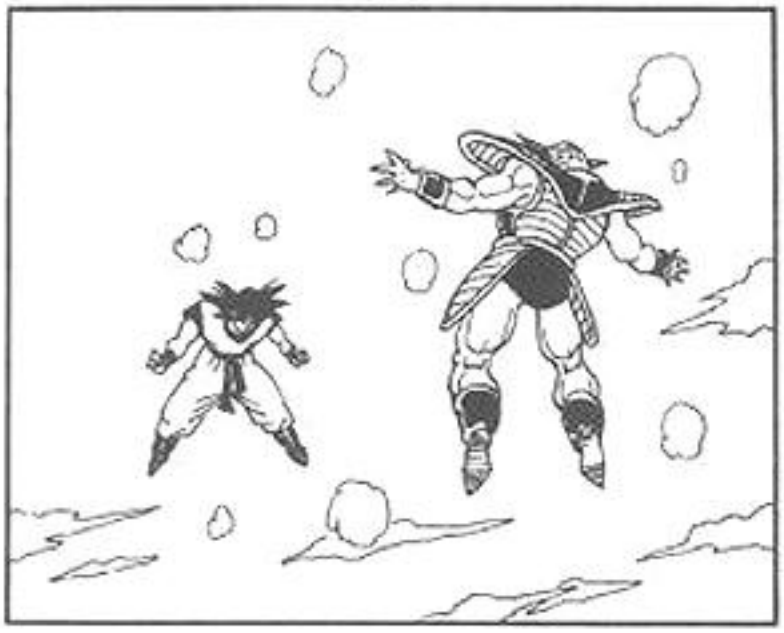

ㅋㅋㅋ…


…… ?
悟


!!
OH
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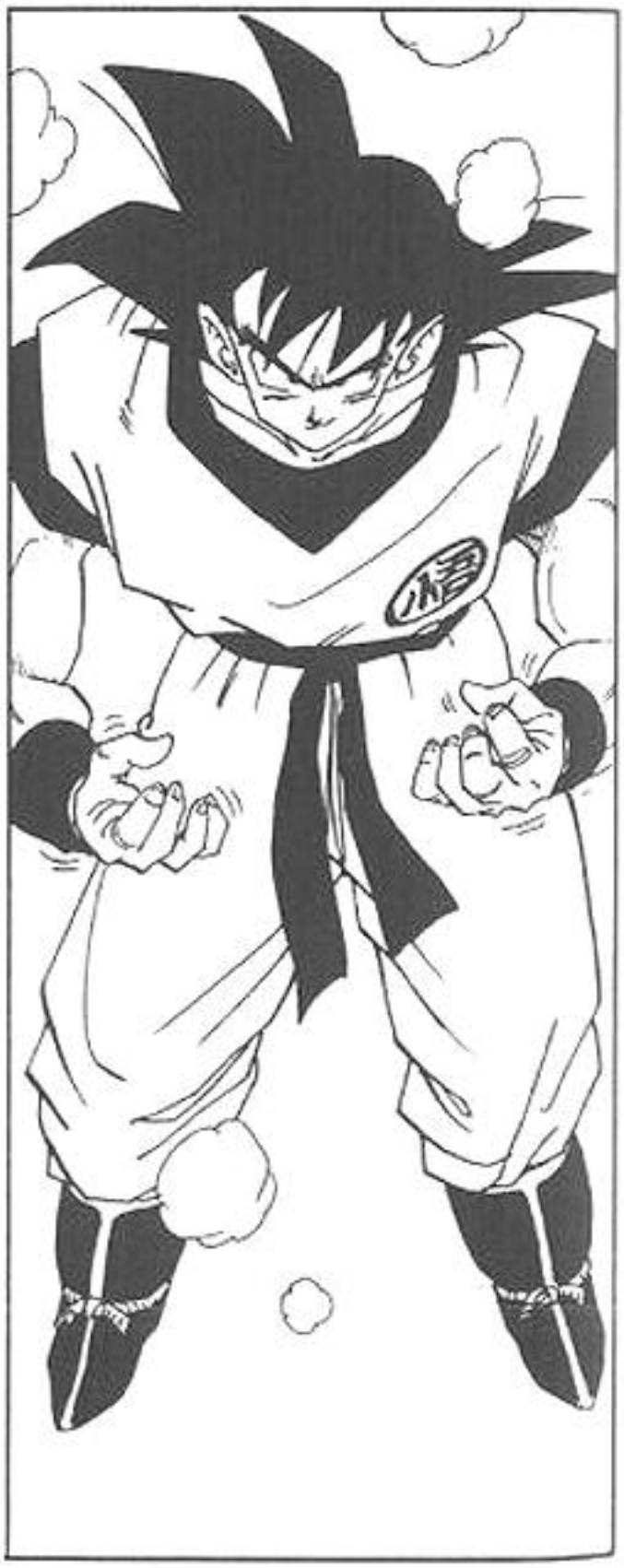
마… 마음에 들었어…. 그… 그 강한 몸을….
너… 너는 초사이어인은 아니지만….
마… 마음에 들어…!?
쾅아앙
크악!!
무, 무슨 짓을…!!
체인지!!
!!






이제
너의 몸과
내 몸을
교환했다….
크크크큭
….


아아아…!!
으으…!



제287화

보디 체인지




이…
이게
도대체…!


서로의 몸을
교환했다고….
좀전에
말했잖아.


어…
어떻게….
왜…
왜 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
기뉴
대장님,
스카우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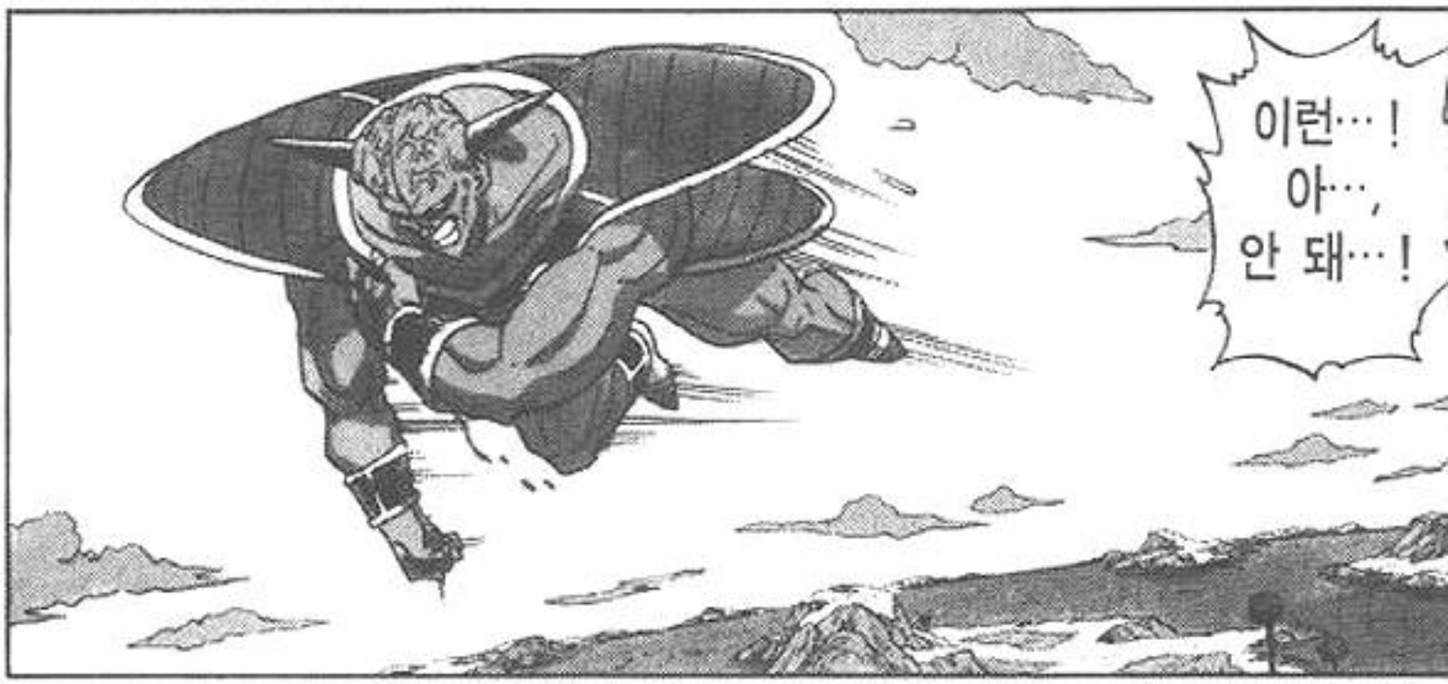

……
이…
이럴
수가….


우주선으로 돌아간다! 프리더 님도 돌아오셨을지 몰라.
좋아!


비…, 빌어먹을…! 모…, 몸이 움직이질 않아….
그… 그놈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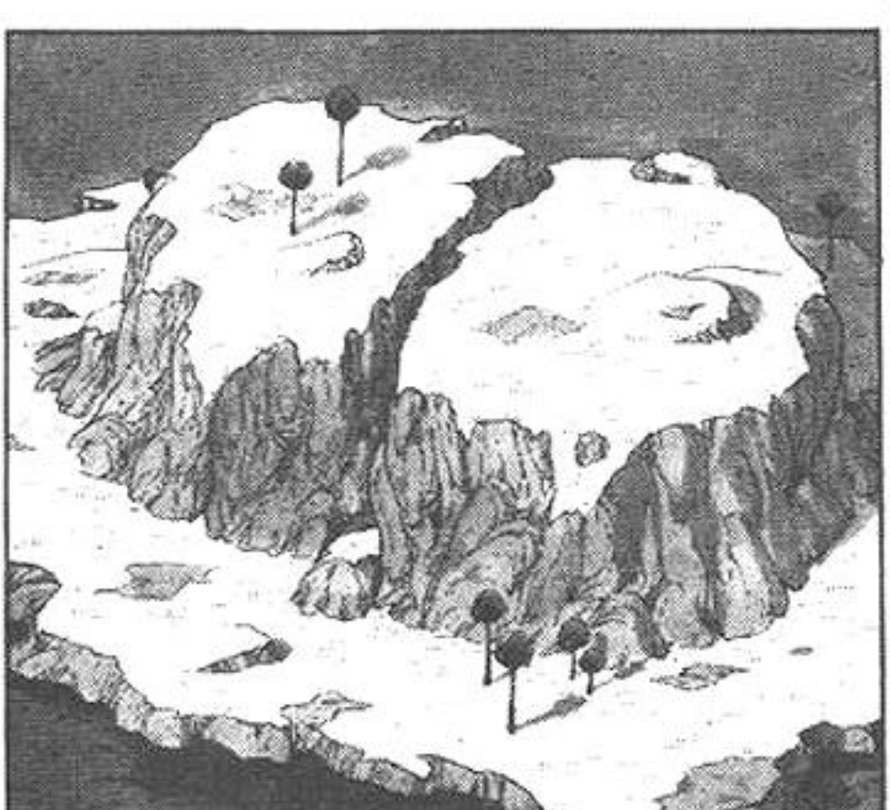

이번 몸은 더욱 빠르구나!
후하하 하하…!!


이… 이대로는 나…. 아니, 그놈들과 크리링 애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
크, 큰일났다…!


이런…!
아…,
안 돼…!


이런
얼굴로는….
이…, 일이
잘 풀려서
지구로
돌아간다 해도
또 찌찌가
펄펄 뛰겠네….


비…, 빌어먹을…!
익숙하지 못한
몸인데다가
부상까지 당해서
제대로 날 수가
없네…!
크…,
큰일났다….





쌔이잉
쌔이잉
탁
부르마-!!
탁
...
쿨...
쿨...
부、부르마!!
드래곤 레이더 어딨어!?
으응~?


자…,
잘 되면
우리의 소원이
이뤄질지도
몰라…!
저…
저기….
빨리 드래곤
레이더를…!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위험한 곳에
레이디 혼자
팽개쳐 두고!
이게 용서가 되는
일이냐구!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베지터랑
드래곤 볼을
가지러 오더니,
또 어디론가
가버리고!


레이더를 봤더니
반응이 7개
전부 모여서,
이미 용신을 불러내
다 끝낸 줄로
알았더니 어디서
노닥거리고
있었던 거냐구!!
뭐시라-!?
아직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


알았다!
크리링
아저씨!
저쪽이야,
저쪽!


노닥
거려….


지, 지금은 바쁘니까
그건 나중에…!
아참!
아빠가
왔어!
자, 잠깐만!
대체
어찌된 건지
이유나
가르쳐줘!


가자!
좋아!
알았어!

오반, 어서!

그, 그래서 어때!? 더 멋있어 졌니!?

진짜로 !?

두두두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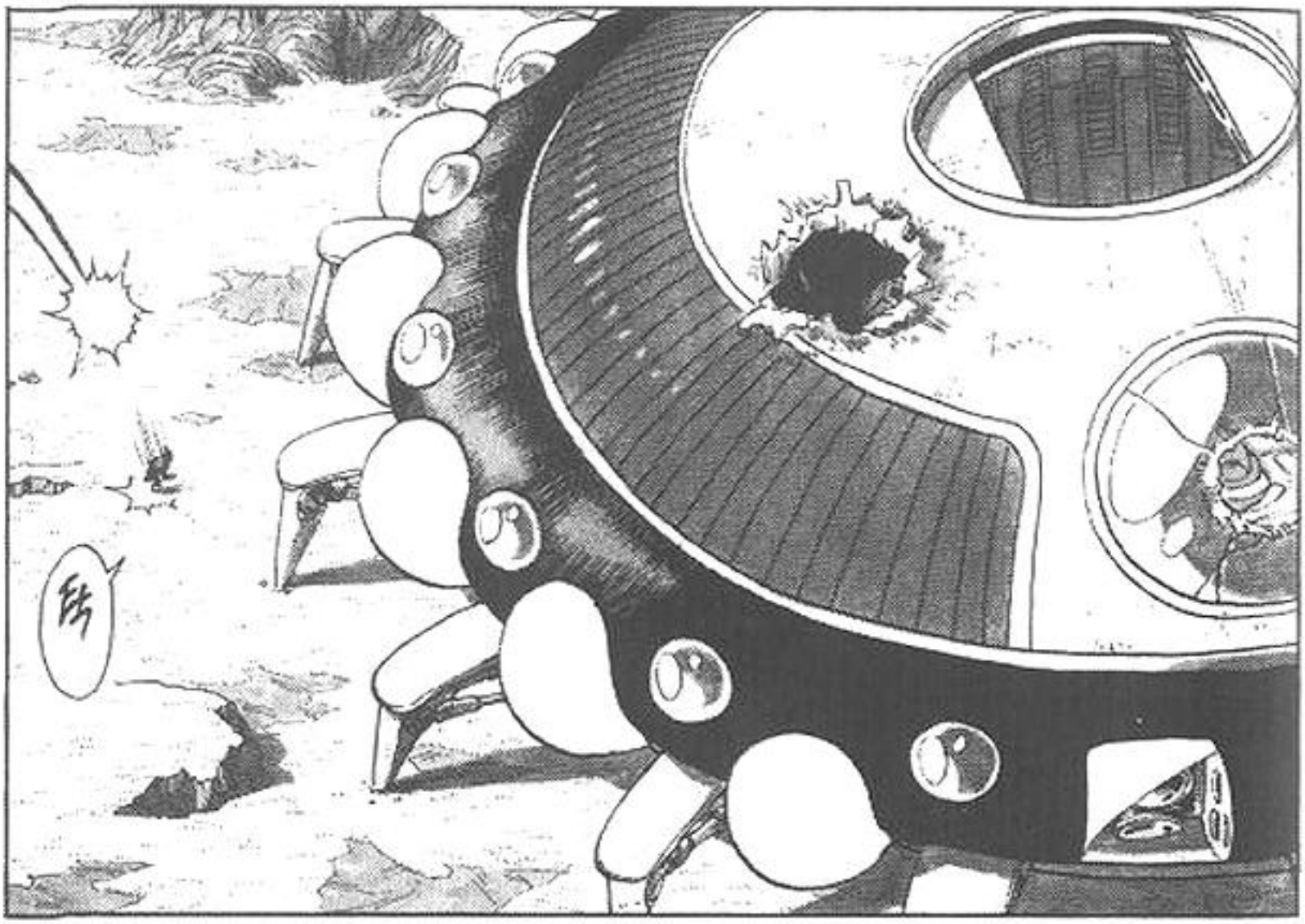
잘못 골랐나…?

……

그 녀석이 그렇게 멋있어질 줄은 몰랐어….

오공 이라….

애인인 야무치는 싸움만 하고….




휘익


됐다….
역시
프리더는
외출중인
모양이군….


기뉴가 남아
있던 걸 보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쨌든 지구인들이
그 묘한 기계로
찾아내겠지….
드래곤 볼이
안 보이네….
어딘가에 숨겼나…?
아니면 프리더가
가지고 간 건가….

그런데 카카로트가 사용한 이상한 약은 뭘까…?

상처가 낫고, 게다가 체력까지 완전히 회복되다니….

지구인들은 곧 오겠군….

지금 빨리 전투복을 새 것으로 갈아 입어야지….

내가 여기 있는 걸 들키면 곤란하지…. 녀석들처럼 전투력을 잘 숨겨야 해….

왔구나, 지구인들….

크기가 맞는 건 구형 타입 뿐이잖아….

쳇….

엇!


크리링 아저씨! 저기…!
마, 맞아! 놈들의 우주선이다!!


타
타


드래곤 볼의 반응은 저 우주선 안이 아니고 좀 떨어진 곳이야…!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 어서 찾자…!

어디냐, 오반?

그러니까…, 이쪽이야….

바로 여기서….

그러고 보니 파묻은 흔적이 있구나! 그놈들, 이런 곳에다…! 좋아, 파내자!

크리링 아저씨, 바로 여기야! 여기!

어라…?

저런 곳에 숨겨 놨었군…!

7개 전부 있다구!

있다, 있어!

탁

너희들을 쳐치하고
나의 소원인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손에 넣게
해달란 말야….

그래~!
어서 용신이란 걸
불러내라…!

어디, 본고장
용신의 모습 좀
볼까나!

좋아, 해보자!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죽을
뚱을 쌌는데!

모두 다
살아날 수
있겠어!

모았다!
여기
다 있어!

우하하
하하…!

으….

우리 정말
고생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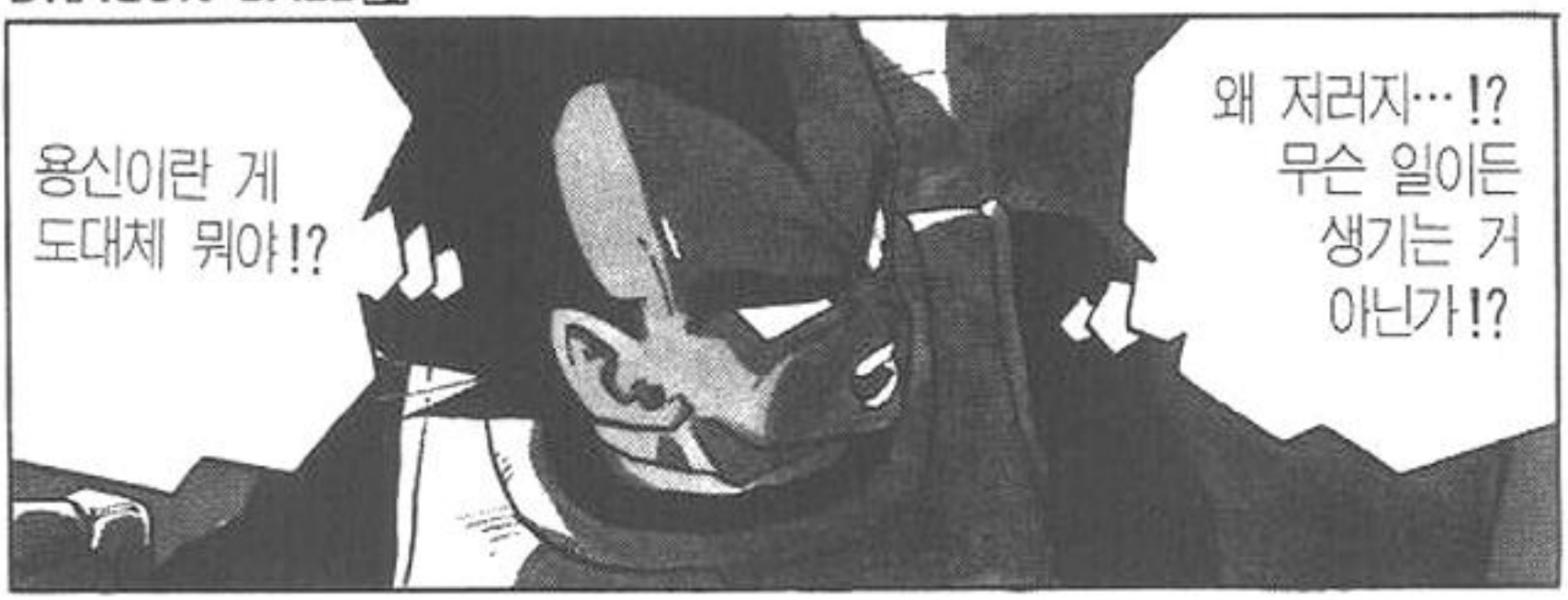
자, 빨리!
어서
불러내!!

나와라, 용신!
그리고 소원을
들어다오!!

저렇게
간단한 게
신호라니…!

……

……


용신이란 게 도대체 뭐야!?
왜 저러지…!? 무슨 일이든 생기는 거 아닌가!?


앗!?
대사가 좀 틀린 건지도 몰라!!
왜 용신이 확 안 튀어 나오냐구-!
멍청한 자식들! 뭐 하는 거야…!
아…, 안 나와…. 용신이 안 나와…
어… 어째서 …!?


그, 그럼 아빠는!? 당했단 말야!?
아, 아까의 기뉴란 놈들 아닌가!?
이, 이런! 두 사람의 기가 느껴져!


누, 누가 이리 오고 있어!
크… 크리링 아저씨!
뭐!?


이거 또 골치 아프게 됐군!
체, 젯…!


사악한 기다! 틀림없어! 아까 그 놈들이야!
어, 어찌 된 거지! 오공은…!!
기를 지우고 숨어, 오반!
씨———앙
타닥
타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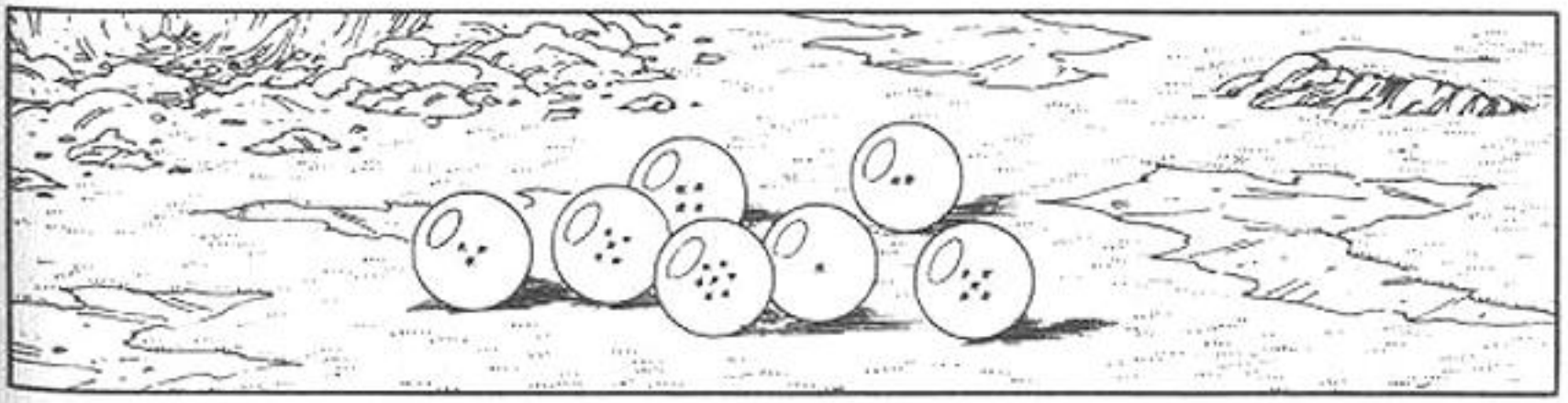
제288화
오공이냐!? 기뉴냐!?



아니!?

엇!?

悟



드래곤 볼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오공!!

왜 묻혀 있던
장소가….

그 녀석을 해치우고
부하를 우리 편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하하!
나야, 나!
간 떨어질 뻔했네.
그 기뉴란 놈인 줄
알았잖아!

무슨 농담이니! 당연히 드래곤 레이더로 찾아낸 거지!

네가 드래곤 볼을 찾아낸 거니…? 어떻게 해서 알아냈지…?

이유가 뭘까…? 부르는 암호가 지구 것과는 다른 건가….

안 돼…. 용신이 안 나온다구 …

그게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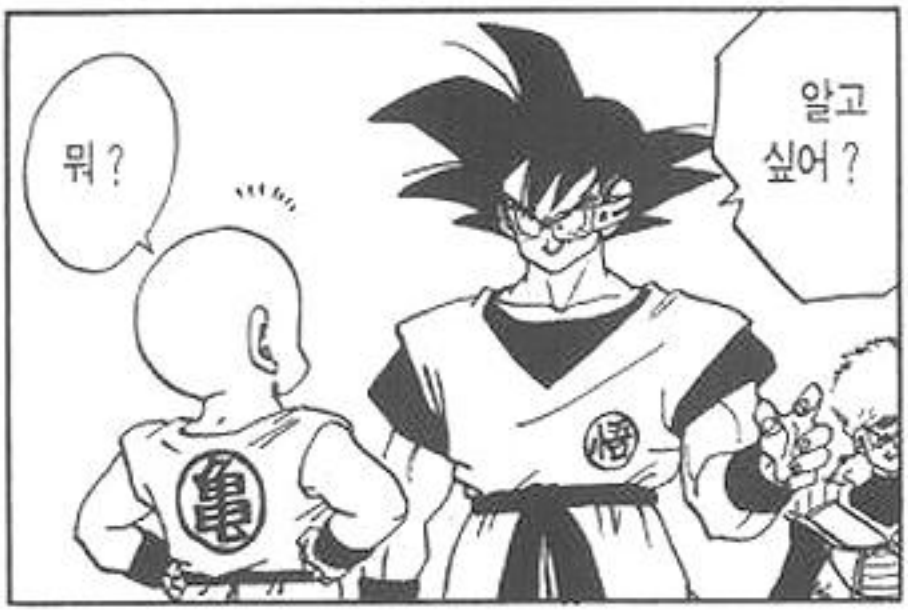
레이더라고…? 제길, 그런 게 있었나….

그래서? 소원은 이루어졌냐?

안 나왔단 말이지….

그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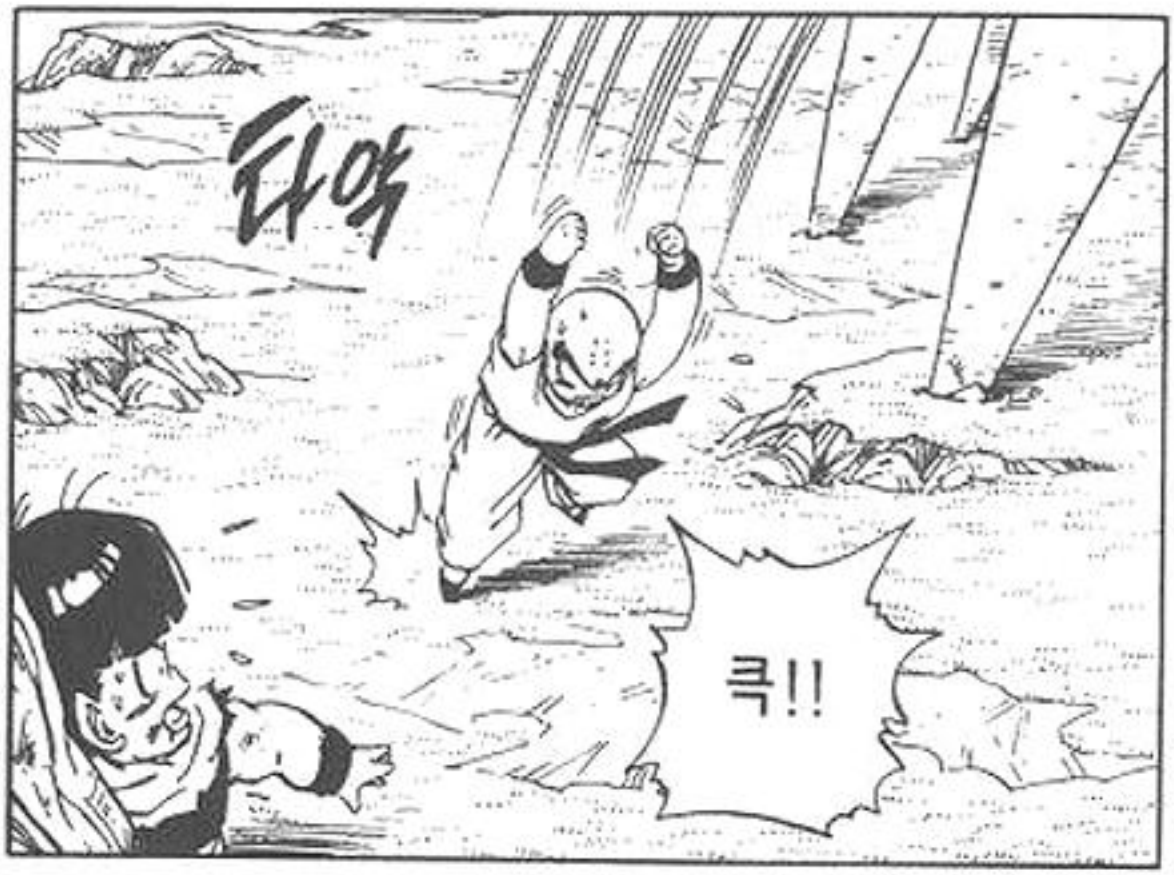

뭐?
알고 싶어?


뭐랄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 게다가 그놈들의 스카우터란 것 따위를 끼고 다니고….
오공…, 너 어디 아프나…?


그놈은 아빠가 아니야!
크리링 아저씨!!




뭐!?


타악
큭!!


!!


또 한마리가 있었구나….
스카우터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 전투력을 제로로까지 컨트롤할 수 있나 봐….


아니… !?


무… 무슨 짓이야, 오공… !
아, 아빠가 아니야. 저, 저건 아빠가 아니라구… !!


이 몸쪽이
훨씬 더
강했거든….
몸을
바꿔
버렸지롱.


이… 이유는
나도 몰라….
하… 하지만
난 알 수 있어….
오, 오공이
아니라니….
무… 무슨
소리야!?
아무리 봐도
저건….


!!


그렇다!!
난 바로
기뉴 특전대
대장 기뉴
님이다!!


뭐…
뭐라고
…!?


모….
옴을
바꿨다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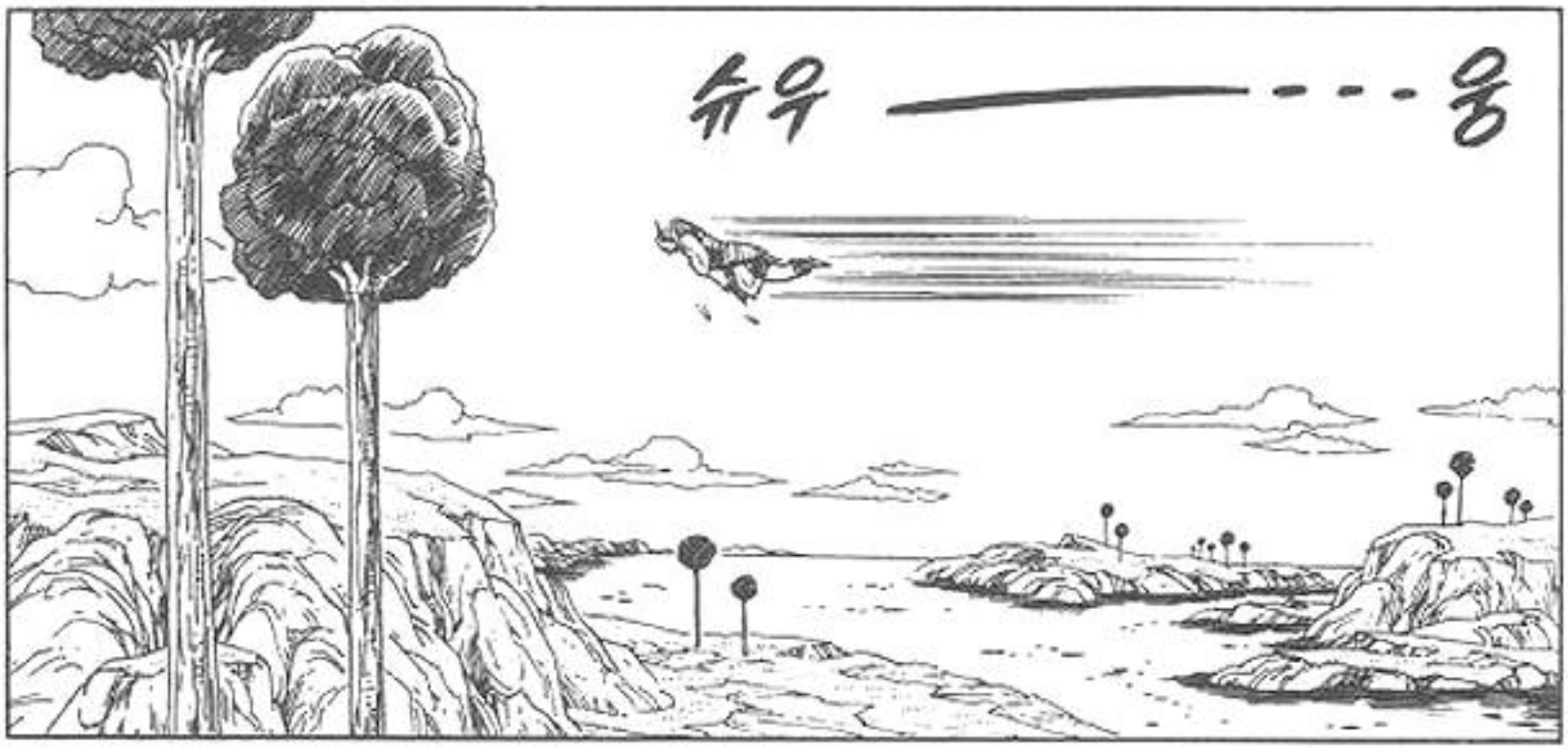
빨리 시험 좀 해볼까나….

그… 그런 말도 안 되는…!!

아…, 안 돼! 오공…! 너, 넌 조종 당하고 있어! 최, 최면술 같은 거에….

전투력 180000이상의 엄청난 파워란 걸 맛보여주마….

타—앗!!


슈우 ——— 웅


제길…!
익숙한 몸이
아니어서 기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네….
아…
아냐.
이쪽이다….


그래,
맞다!
내가 이 몸에
익숙치 못하다면
그놈 역시 내 몸에
익숙치 못할 거야!


……!!
익숙하지
못한 몸….


크…
크리링과
오반이
위험해…!
저…
저긴가….

우하하핫!

부우우

아자자 자잣!!

이거 점점 더 골치 아프게 생겼네….

몸이 바뀌든 최면술에 걸렸든. 카카로트의 파워엔 변함이 없을 거야….


후하하 하하!!
파워가 점점 강해진다! 각오는 됐겠지!?
파박
파파팟
빡!
엉?
아!
기뉴 대장!
저 자식이 쫓아 왔습니다!
뭐야?
悟
헉헉! 차, 찾아 냈다…!

여기까지 잘도 쫓아왔구만. 크흐흐…! 좀더 지독한 상처를 몸에 임혀 놓을걸.

탁

그… 그 얘기가 진짜 였구나…!

으… 으아 아….

크, 크리링! 오반…! 자, 잘 들어…! 그놈은 내가 아니야! 몸이 교환 당했다구…!

저… 저게 아빠…!?

이… 이런….

지금의 너희들이라면
분명 이길 수 있어!
알겠지…!!
날려 버리라구…!!

그, 그놈은
기뉴야!
망설이지 말고
해치워 버려…!!

후하하하…!
딸랑한 놈!
분명 이길 수
있다고라!?

나…,
날려
버리라니….

이건 원래
네 몸이다!
전투력은
180000이상이고!
이기긴 누굴 이겨!!

크큭….
나 기뉴 님에게
그런 뻥은
통하지
않아…!

지금
보여주마!

그… 그건
내 몸이다….
계왕권은커녕
기의 사용법조차
제대로
알기나 해…!?

사…,
상대해 보면
알 거야….

정신과 몸이
일치해야
큰 파워를
낼 수 있다구…!!


이야아아
아아압…
!!
크하하
하하…!!
지스!
내 전투력이
얼마냐!?
음….
23000
인데유….
뭐…,
23000…!?
겨우
23000이야…!?

이, 이럴 수가…!!

아, 아니…!?

큭!!

저, 정말 이네…!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네놈의 상대는 나야!

형씨!

지스, 뭐 해! 너, 너도 덤벼!

아! 예, 옛!

베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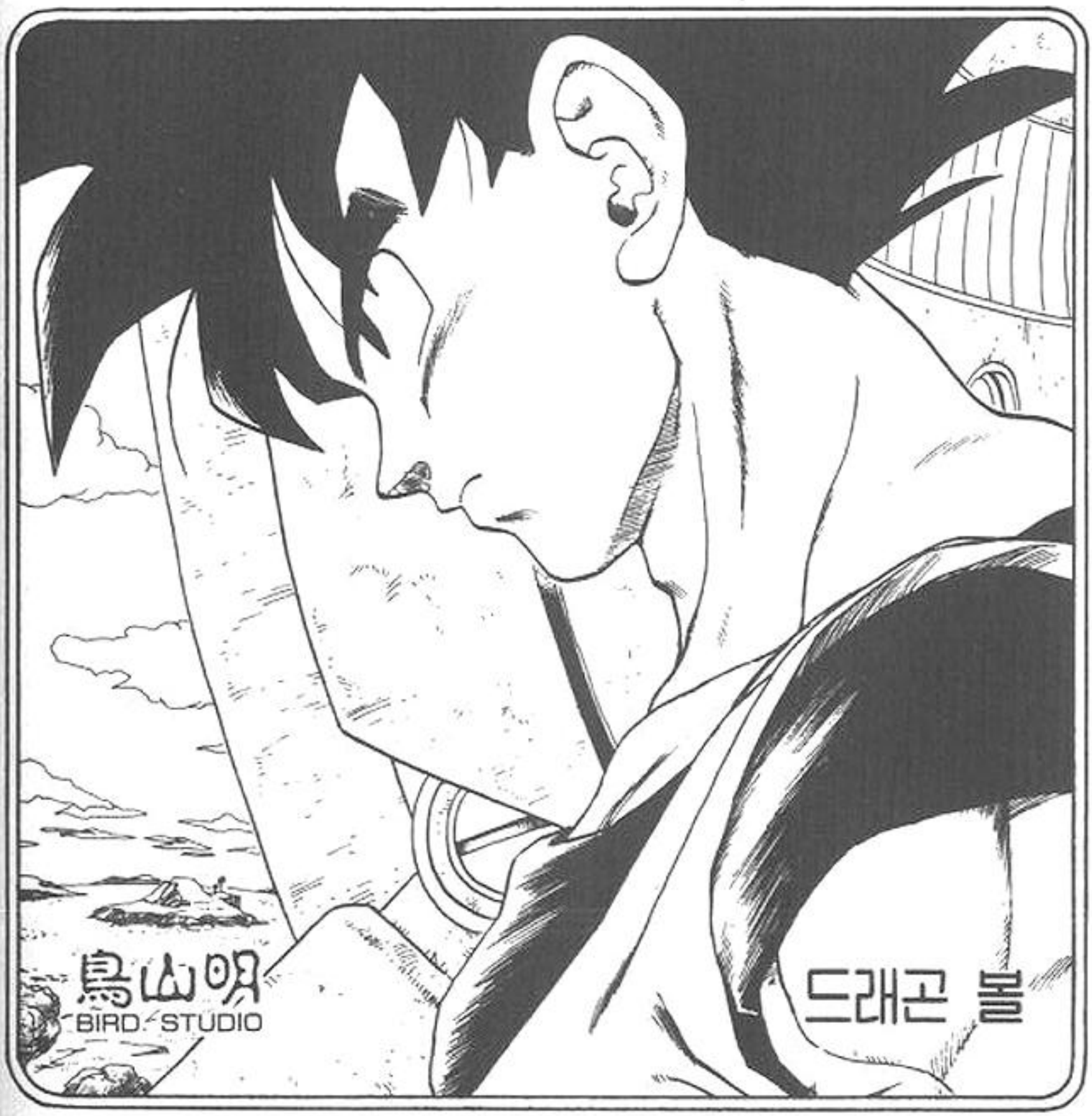
표지 페이지 대특집XXIII



이, 이럴 수가! 오공과 기뉴의 몸이 서로 바뀌어 버렸어- !!
7개의 드래곤 볼을 눈앞에 두고, 뒤엉켜버린 대혼전!!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선, IQ점프에 실린 그대로의 표지 페이지
대특집이다… !!

DRAGON BALL

제279화 불가사의한 손오공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280화
초사이어인!?

鳥山明
BIRD STUDIO



신생오공의 파워 폭발!!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281화
대결!! 지스와 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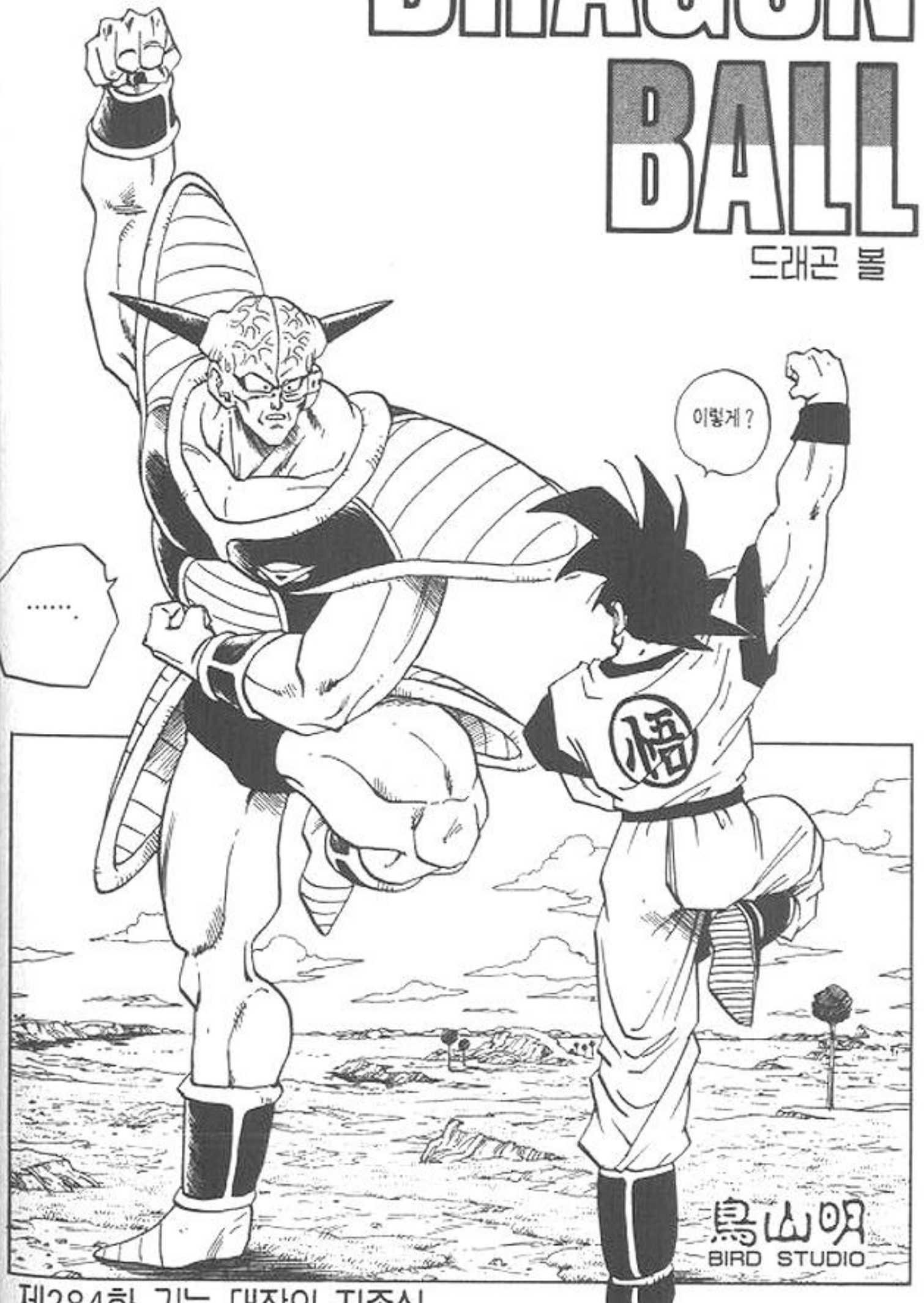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284화 기뉴 대장의 자존심

DRAGON BALL

제285화 위기의 최고장로



드래곤볼
DRAGON BALL



제286화
나메크성의 전사 네일

鳥山明
BIRD STUDIO

scanned by raprnb

아이큐 점프 코믹스

DRAGON BALL
드래곤볼

★24

2001년 3월 20일 제1판 인쇄
2001년 3월 25일 제1판 발행

저자 ● AKIRA TORIYAMA
번역 ● 아이큐 점프 편집부
발행인 ● 백승철
발행처 ● (주)서울문화사
등록일 ● 1988년 2월 16일
등록번호 ● 2-484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
전화 ● (02)7999-179~184(편집) / (02)7999-201~207(판매)
FAX ● (02)798-9991(편집) / (02)749-4079(판매)

[DRAGON BALL]
© 1984 by BIRD STUDIO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Japan in 1984 by Shueisha Inc., Tokyo.
Korean translation rights in Republic of Korea arranged by Shueisha Inc.
through Shin Won Agency Co. and MSC Japan Inc.

Korean edition, for distribution and sale in Republic of Korea only.
한국 내에서만 배본과 판매가 가능한 한국어판

●인지는 작가와의 협의하에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